

할렐루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서 죄인이었으나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하심에 기쁨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복음의 놀라운 감격이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늘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 “복음의 약속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 TGC, 종교 개혁 주일 맞아 조나단 리네보 교수의 루터가 재발견한 복음의 의미 소개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공개한 지 505주년인 되는 날이다.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그가 발견한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그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에 서방 세계를 향해 로마 가톨릭의 숨막히는 권위를 깨뜨리고, 성경을 보통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유럽 전역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높이고, 또 수천 개의 새로운 기독교 교파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일궈낼 수 있었을까?

루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았다. 로마 가톨릭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 복수심에 불타는 하나님을 달랠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결국 그 두려움을 더 증가시킬 뿐

이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교황제도 아래서는 죄책감이 우리를 떠날 때까지 수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를 다 하여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루터 자신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신이 전혀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는 여러 차례 우울증에 빠져들 때마다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가?”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그가 종교 개혁의 발판을 놓게 하는 발견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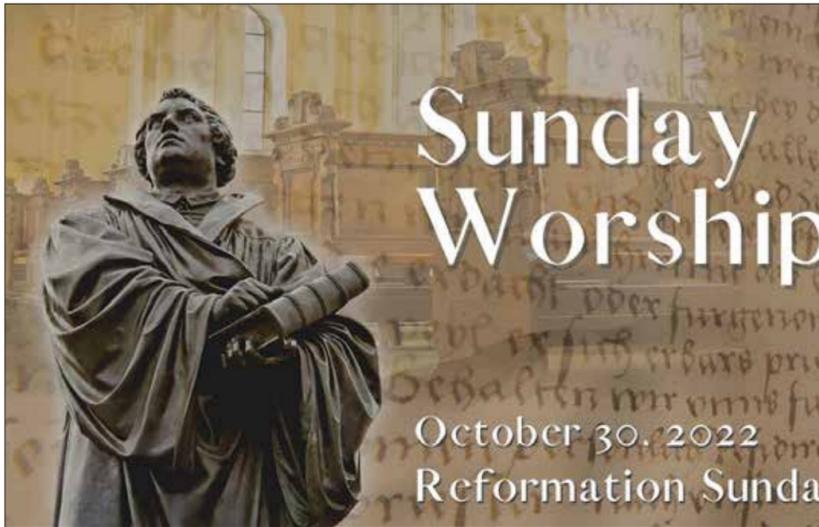
비스 신학교 석좌교수인 조나단 리네보(Jonathan Linebaugh)는 루터의 대답을 세 부분으로 설명한다(What Was Martin Luther's Breakthrough?).

#### 1. 하나님의 약속

루터가 후기 중세 로마 가톨릭 전통을 이해한 것처럼, 사제가 “당신을 사죄합니다”(te absolvo)라고 할 때 그 말은 이미 받은 용서의 상태를 확증하는 것뿐이다. 회개한 죄인은 용서받았고 사제의 선언은 그 현실을 확증한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그 사실이 너무 궁금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 죄를 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루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하실 것도 알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 존재를 의롭다고 하지 않을까? 우리의 행위로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의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인간 존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 새로운 이해(또는



오히려 옛 이해의 재발견)는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루터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터는 율법과 복음이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다만 구속 역사에서 다른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배웠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여졌지만, 교회는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율법과 복음이 별개의 것임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율법의 기능을 새롭게 이해하고 이중적인 기능으로

설명했다. 그의 이해에 의하면, 첫째, 율법은 우리 죄의 결과를 보여 준다.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루터는 타락한 인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자기의’라는 괴물, 목이 뺏겨진 짐승은 큰 도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큰 도끼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 힘든 시대에서 교회 리더가 갖추어야 할 지혜

#### 리더십저널, H. 노먼 라이트 박사 소망과 평안 기대는 삶 소개

세상이 문을 닫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해갔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련을 받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잇따랐다. 온 가족이 오랫동안 집 안에서 지지고 볶는 데다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져서, 가족들이 이 시간을 누리며 함께 성장할 길을 찾기보다는 문제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코로나 위기에 위협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들 간에 관계에 틈을 만들어 냈다. 여기에 물가마저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 고숙 인플레이션 시대에 처해져 있다.

미국에서 트라우마 상담가로 널리 알려진 노먼 라이트 박사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사랑과 접촉에 굶주려 있으며, 마음속에 떨어진 한 방울의 걱정이 점점 삶을 가라앉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좌절감이 치솟고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이 강한 전염병이 되어 나타났다고 진단한다. H. 노먼 라이트 박사는 그의 책(Restarting the World: A New Normal After a Pandemic)에서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평안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을 제시한다.

힘든 시기에 남들을 세워 주라

힘든 시기에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아메리칸 헤리티지 사전은 ‘격려’를 ‘최선의 결과를 예상하거나 상황의 가장 희망적인 측면을 곱씹는 경

향 혹은 성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태도나 시각을 가진 사람은 남들을 격려할 수 있다. 그리고 남들에 말을 유심히 들어주어야 한다. 격려는 상대방의 가치와 존엄성을 알아보게 한다.

(3면으로 계속)



3면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4면 푸른초장 이영상 목사



8면 기독교 명저의 초대 이윤석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서,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가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치위탁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미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료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아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필수전기시설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 Email: laguesthouse@live.com

2022 *Miracle Blessing*  
**미라클블레싱**  
21일간의 축복성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 10/30(주일) - 11/19(토) 21일간, 7:30pm  
장소: 주님의영광교회 비전센터(본당)  
**\*주일은 주일에배로 대체합니다.**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www.gccj.org Tel. 213-749-4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권에스터 선교사 (멕시코)	 김가을 목사 (구 소연 회대교회)	 김종욱 목사 (홀리랜드 성경연구소)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교회)	 아나토미 담임목사 (Gospel Storm Church)
 최형주 담임목사 (생수영광교회)	 최현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현기훈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강석주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김은광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김인찬 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발행인 칼럼

행복하면 행복하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 그럴까?

돈도 벌만큼 벌었는데, 그만하면 출세도 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삶에 질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몇 년 전 달라스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 40대 한인 대학교수가 역시 대학교수인 아내를 총으로 살해하고, 그것을 은폐하려 했는지 살고 있던 좋은 집에 불을 지른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그 당시 다섯 살이었던 그들의 딸은 주차장 차에 홀로 남겨 있었다. 미국에서 부부가 대학교수라면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은 돈도 성공도 아님이 분명하다. 행복은 나의 내부나 외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나보다 더 원하신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 10:13)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 행복의 길은 말씀에 항복하는 것이다. 진리이신 하나님께 귀순(歸順)함이 없이는 행복은 없다. 진리를 내게 오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대한 투항(投降)이 아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진리에게로 가는 것이 항복이다. 항복하면 행복하다. 탕자는 아버지께 항복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풍요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만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부부 사이도 먼저 항복하면 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행복의 잔치를 진하게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며 동시에 오늘 누리라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 6:24) 이런 글을 읽었다. 멕시코시티의 한 시장 구석에서 한 인디언 노인이 양파 스투를 들고 팔고 있었다. 시장 구경을 하던 한 미국인이 노인에게 양파 한 줄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10센트라고 대답했다. 두 줄은 얼마냐고 하니 20센트라고 답하고 세 줄은 얼마냐고 하니 30센트라고 했다. 많이 사도 깎아주지 않으니 모두 사면 얼마냐고 하자 모두는 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왜 모두를 팔지 않느냐고 물으니 지금 모든 것을 팔면 집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어서 시장에서 누리는 행복을 잃게 된다고 답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 행복을 이렇게 노래하신 분이 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야 나의 삶의 행복이랴/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랴---'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오늘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오피오이드 위기로 미국 사회 진통 계속된다!

BBC, 합성 오피오이드 과량 복용 인한 사망과 내원 사례 급속 증가 보도

미국에서 합성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중독 사례가 늘면서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으로 대다수는 성인이었지만, 10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5세 멜라니 라모스도 이 중 한 명이다. 지난달 멜라니는 펜타닐이 함유된 알약을 먹고 학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멜라니와 그의 친구는 자신들이 퍼코셋(Percocet)을 복용하고 있는 줄 알았다. 퍼코셋은 가끔 남용되긴 하지만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진통제다. 하지만 약은 위조품이었고, 펜타닐이 들어있었다.

멜라니가 다니던 번스타인 고등학교에서는 쫓불 집회가 열렸다. 그의 친구와 가족들은 스페인어로 기도했고, 그를 위해 꽃을 놓았다. 멜라니의 삼촌은 "그는 근면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름답고 친절하고 소녀였다"고 말했다.

펜타닐은 일반적으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의해 미국으로 밀수된다. 이전에는 헤로인 같은 강력한 마약에 사용됐지만, 최근 카르텔은 펜타닐 알약에 다채로운 색깔을 입히고 처방약을 모방해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르텔의 목적이 마약에 호기심을 갖는 어린이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 지난 12일,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법무부와 합동 수사를 통해 펜타닐 파우더 24kg을 압수했는데, 이는 알약 25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미국 전역에서 약물 과다복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뉴욕에서는 당국이 레고 장난감 박스에 숨겨진 무지개색 알약 1만5000개를 압수했다.

미국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 세계 평균에 비해 20배 높은 정도로 예외적이다. 하지만 스코틀랜드도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UCLA)에서 약물 사용 연구를 하는 조셉 프리드먼은 "불행하게도 미국은 약물 과다복용에 있어서 단연 세계 선두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미국 학령 아동의 약물 과다복용률이 2배 늘었고, 지난해에는 20% 더 증가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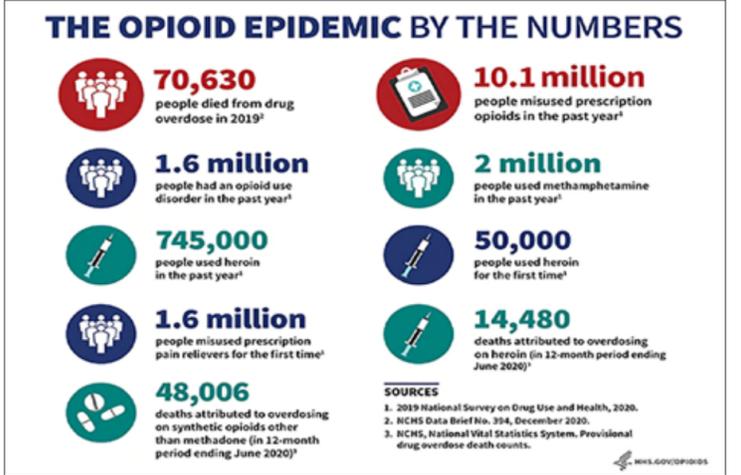
프리드먼은 "10대 약물 사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지만 더 흔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추세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펜타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약물 복용은 주로 타인과 교류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10대 약물 사용 사례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멜라니가 사망한 번스타인 고등학교에서는 이번 일로 인한 회의가 열렸는데, 정부 관계자와 경찰은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단 하나의 알약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LA 당국은 마약 해독제로 알려진 나르칸(Narcan)을 모든 학교에 비치하기로 했다.

나르칸은 주로 비강 스프레이 형태로 제작되며 약물 과다복용 효과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나르칸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



은 이번 달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오피오이드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는 관련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15억달러를 투입하고 마약 밀매법을 추적하기 위한 법 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10대들이 학교에서 주의를 주거나 가르치는 내용과 상관없이 마약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LA 커뮤니티 헬스 프로젝트 직원들은 사람들이 마약에 완전히 취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르칸과 펜타닐 검사지를 배포하고 있다. 그들은 학교에 나르칸을 비치한다는 당국 결정을 반겼다. 또 부모와 아이들이 개인적으로도 나르칸을 휴대할 것을 촉구했다.

마약 및 알코올 상담사인 산드라 미스는 최근 한 트레이닝을 통해 나르칸 사용법을 시연했다. 코에 스프레이를 넣고 분사한 뒤 흉골 쪽을 문지른다. 만약 2~3분 뒤에도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다시 한번 스프레이를 뿌린다.

미스는 "빠르면 12살부터 마약을 접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펜타닐과 합성 알약이 등장하면서 사망률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과거 아편제를 복용했던 니 안젤로는 이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한 주에만 나르칸으로 3명을 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경험을 말하면서 뿌듯해하기보다는 다소 지쳐 보였다.

"저와 친구들이 아편제를 복용할 때는 매년 죽을 걱정을 할 필요까진 없었어요."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Kingdom Bible Transcription advertisement. Text: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Product: Kingdom Bible Transcription (일부용, 청소년용). Contact: www.hisfingermall.com.

### 복음의 약속을 믿는 순간...

(1면에서 계속)

루터는 “율법이 당신을 절망에 빠뜨릴 때, 법이 당신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팔 안으로 곧장 들어가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위업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다.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면 이 자유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 3.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것은 루터의 획기적인 세 가지 발견 중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다. 수년 동안 그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배웠다. 즉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을 벌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이다. 당시 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불가타 라틴어 성경은 의롭게 됨이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해하게 했다. 이것은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낳았다. 대신, 그것은 고행과 연옥과 같은 교리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원어인 헬라어에서 “의”(righteousness)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된 루터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칭의는 일련의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즉시 전가시켜 주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복음의 약속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장자의 명분으로 이 두 가지 특권, 왕권과 사제직을 얻으신 것과 같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라고 했다. 루터는 이것을 “행복한 교환”

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신 대신 그 대가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사람들이 의로운 것과 불의한 두 가지 다른 상태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루터는 이 두 가지 상태가 서로 겹쳐진다고 보았고, 그 겹치는 공간에서 크리스천은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으로(simil iustus et peccator)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결과: 좋은 소식

루터는 이러한 발견을 스스로 이렇게 묘사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다시 태어나 낙원의 열린 문을 통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은 복음이 참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했다. 충분히 알려지고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의 그런 자유를 말이다. 그것은 보장과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져다주는 자유이다.

신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다.

#### 소망으로 시작하기를 다짐하라

소망이 두려움으로 변했다. 한때 우리가 누렸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은 사라졌고 세상이 온통 뒤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사망, 폭동, 무자비한 총격 사건이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지 2년이 훌쩍 넘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두려움이 마치 담요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덮고 있다. 두려움 아래에 숨어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되어야 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용기를 빼앗아 가던 길을 멈추고, 심지어 후퇴하게 만든다. 소망은 후퇴하고 싶을 때도 용기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등을 밀어준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우리에게서 소망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의 병기창에서 두려움을 깨뜨리기 위한 가장 강한 무기 중 하나는 기억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있다는 것을 아신다.

### 목양실에서...

## 상처 입은 치유자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망의교회)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상처로 살아갑니다. 몸에 상처,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상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5천만 부 이상 팔린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자 새들백교회의 담임이었던 릭 웨렌 목사님도 그의 성공적인 삶 뒤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뇌기능 부전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졸도할 경우를 대비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늘 다른 설교자들 대기 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매튜가 긴 세월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투병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깊은 아픔도 겪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거절당한 가인, 인정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다윗을 질투한 사울 왕,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다윗, 속이고 속았던 야곱,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간 요셉, 불임 때문에 모욕당했던 한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된 나오미, 왕자였지만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트리보렛...

인물 대부분이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았습니다. 상처는 아픔입니다. 자기 연민, 우울증, 무관심, 열등의식, 불안정, 패배의식, 죄책감, 두려움 등을 가져다줍니다.

사람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톨이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줍니다. 특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큰 아픔을 줍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남에게 상처를 되돌려 주는 보복의 칼이 됩니다. 하지만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처 많은 꽃잎이 가장 향기롭다”는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치유 받은 상처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치유받은 상처는 능력입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진액을 짜내어 상처를 아물게 하고, 진액으로 모래알을 감싸 안아 진주라는 보석을 만들 듯이, 치유 받은 상처는 인생을 진주와 같이 귀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줍니다. 치유 받은 상처는 능력입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진액을 짜내어 상처를 아물게 하고, 진액으로 모래알을 감싸 안아 진주라는 보석을 만들 듯이, 치유 받은 상처는 인생을 진주와 같이 귀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줍니다. 성장과 성숙을 선물로 줍니다. 영적 멧집을 길러 줍니다. 고난 속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치유 받은 상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끝없는 인신공격을 당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투성이인 사도 바울은 그의 몸의 남겨진 상처가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흔적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치유 받은 상처는 남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남의 아픔을 더 공감하고, 남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도구가 됩니다. “상처, 별이 되다”(Scar into star)라는 영국 격언처럼 남을 섬기는 별이 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별이 됩니다. 치유 받은 상처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는 도구입니다. 자아가 강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뜻과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독일인 신부인 안셀름 그룬(Anselm Grun)이 “상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깊은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the wounded healer)이십니다. 그 분은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자들을 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히 2:18)

### 힘든 시대에서 교회...

(1면에서 계속)

이는 남들이 말할 때 자신이 이어서 할 말을 생각하지 않고 경청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만든다.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들어야 한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 하면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는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 주면 좋을까? 그가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할 때 당신이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면 어떨까? 격려하는 사람은 숨은 보물을 찾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그 속에 개발되지 않은 자원을 품고 있다. 리더의 일은 그런 자원을 찾아 꺼내 주고 개발해 주는 것이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보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보물은 처음에는 거칠고 불완전할 수 있다. 우리의 격려는 남들이 이 보물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두려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

큰 실패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육체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하나? 아니면 자신을 희생자로 보며 눈앞의 문제에 대해 남들을 탓하나? 유연성이 있어서 상황 변화에 재빨리 적응할 줄 아나? 우리는 많은 난관과 변화를 겪는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난관들을 강하고 유연한 태도로 맞을 수 있을까?

엘 시버트(Al Siebert)는 “The Resiliency Advantage”(회복력의 이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한 회복력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시련이 예기치 않게 닥쳐도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룬다.” 생존자들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삶이 무너져 내리려도 결국 그들은 전보다 더 강하게 회복되기 때문이다.

생존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상황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 생존자들은 변화에 적응할 줄 안다. 그들은 유연하고 회복력과 적응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특성이 없다면 삶에 대처하기가 무척 힘들다. 경직된 사람일수록 미래가 밝지 않다. 당신은 경직되어 있나? 아니면 유연한가? 잘 모르겠다면 배우자나 믿을 만한 친구에게 물어본다. 생존자들은 끝까지 버틴다. 끈기는 소망과 믿음의 증거이다. 당신은 인내하며 계속해서 시도하나?

그리고 생존자들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소망을 찾는다. 소망은 맹목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낙관론이다. 소망의 사람은 삶 속의 문제와 난관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들을 넘어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 준다. 소망의 사람은 단순히 내일의 가능성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가능성을 본다. 소망의 사람은 정체를 거부하고 늘 열정적으로 살아간다. 소망은 우리를 해방시켜 전진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에 자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미국장로교회(PCA) 소속 제일장로교회는 지난 46년동안 지역 사회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섬겨온 교회로서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서 바른 성경적 리더십과 복음적 열정으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갈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요건

- 정규대학 및 PCA가 인정하는 신대원 (M.Div)졸업자 및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
- PCA 소속 목회자 및 PCA 교단 가입이 가능한 목회자
- 미국에서의 10년 이상 건강한 담임목회 사역 경험자
-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건강한 목회리더십을 가진 자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이중언어(한어/영어) 가능한 자

####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포함)
- 자기 소개서 “구원과 목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에 관련 내용” (한글과 영문)
- 대학(B.A.) 신대원(M.Div) 혹은 그 이상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 소속 교단 총회 혹은 노회 발행목사 안수 증명서
- 추천서 2부 (동료목회자 1부, 노회 혹은 신학기관 1부)
- 최근 설교 동영상 Link 또는 File E-mail (영어설교가 가능한 분은 영어설교 추가)
- 가족 소개 사진이나 동영상
- 목회 계획서

#### 제출 및 문의

- 제출 마감일: 2022년 10월 31일
- 제출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atlkfpcinvite@gmail.com
- 전경태 장로 678.362.7788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6175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 www.kfpcchurch.com



###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배이사이드장로교회)

#### 지금 기회라고 생각되면 연기하지 말고 하라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씨를 심을 때를 잘 파악하고 그때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 만일 시간을 끌며 때를 놓치게 되면 수고를 했어도 열매는 가질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호박이나 오이씨를 여름에

심는다면 그는 수고는 했으나 아무 열매를 가질 수 없다. 때가 늦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의 일이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귀찮고 어려워도 곧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열매를 거두기 힘든 것

이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목회하면서 지금 해야 앞날에 열매가 있을 것을 생각하며 몇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이 있었다. 그 첫째는 담임 목사로서 청년부를 직접 맡아 담당하는 것이었다. 그때 내 나이가 40세였는데 청년부를 맡은 이유는 앞날을 생각해 보니 나의 목회 끝까지 나와 함께할 사람들은 청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10년 이상을 직접 청년부를 맡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제자 훈련하고 수련회를 통하여 함께 웃고 울며 세월을 보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청년들을 위하여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월요일 새벽 기도회 후에 조찬기도회를 열고,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 훈련하고 수련회를 인도

하는 과정은 너무도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60이 넘어 그 열매를 보고 있다. 내가 지도한 청년 중에는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다. 유학생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짝을 만나 배우자를 따라 떠나 다른 교회로 간 청년들도 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지도한 청년 중 많은 숫자가 교회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부서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어떤 청년은 이미 장로가 되어 당회에 들어와 있고 어떤 청년들은 안수집사로 교회를 든든히 섬기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부장으로 부감으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 섬기고 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적당할 때에 청년들을 맡았던 것을 참 잘한 것으로 생각하며 하

나뉘어 지혜를 주심에 감사한다. 그리고 현재는 그때와 같이 앞날을 예측하며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다. 그것은 평신도 설교자 훈련반이다. 내가 그 일을 시작한 이유는 교계의 동향을 보면 신학을 공부하는 2세가 적다는 이유다. 그래서 교회나 신학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러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는 사역자들이 조금 있는 편이나 중소도시에는 아예 신학교 교사도 찾기가 어려워진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은 지금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젊은 1.5, 1.6세대들이 있을 때 그들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만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과감히 평신도 설교자 훈련반을 만들어 그들을 지도하게 되었다. 평신

도 설교자 훈련반에서는 성경과 교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준 있는 책을 읽고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현재 평신도 훈련반에 등록된 사람은 33명이다. 당회에서는 평신도 설교자 훈련반을 위해 아예 결정하기를 그들이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주일학교와 새벽기도회나 주일 저녁에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한 강의 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앞날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셔서 2세, 3세를 통해 귀한 열매를 무수히 맺게 하시길 것을 바라보며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david2lord@hotmail.com

### 푸/른/초/장

이영상 목사  
(뉴욕중앙산정교회)



논산 훈련소에서 군사 기초 훈련을 받을 때 기다려졌던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었고 또한 고된 훈련도 잠시 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교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다녀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내무반에 남아있다가 다른 작업에 동원되기 싫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며 주일에 교회에 가겠다고 긴 줄을 서는 훈련병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일이지만, 정말 교회 가고 싶었던 제게는 끔찍한 매 주일이었습니다. 훈련소의 주일 아침은 '가짜 신자'들이 대거 양산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꼭 군대 안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신자라 하지만 사실상 참된 신앙은 소유하지도 드러나지도 않는 '가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게 '그리스도' 즉 구세주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에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비장한 말씀에 대해 베드로는 즉각 반응을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생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칭찬까지 해주신 그 메시야가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견디기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바로 그와 똑같이 오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주면 적어도 이 소원은 이루어 주시겠지. 당연히 이 정도는 해 주어

었던 베드로조차 금세 사단의 대변인 노릇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과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사단의 생각을 전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렵고 조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보다는 내 육신을 따뜻하고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저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것보다는 당장 이 인간 사회에서 완전한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백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요 곧 사단의 사고방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를 똑바로 깨닫게 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십자가 하나를 주셨습니다. 신자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 하면 이처럼 엄청난 고난까지 감수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그 길은 고난의 경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길은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장차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좀 잃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함은 이 세상에서도 상식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노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잃어버린 시간이나 돈을 두고 손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 될 그 날의 영광을 27절에서 다시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모두 "각기 행한 일"대로 상을 받게 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입으로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저 편하게 살려고만 하고 자기 생을 바쳐 섬기는 일이 전혀 없었던 신자들까지 "제 목숨을 잃고" 영벌에 빠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예 자기중심의 생을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따라갔던 성도들은 주님과 영생하는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영광을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간단한 계산조차도 현실에서는 해내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게 되는 '우리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잘 살펴보면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 쓰던 시간과 힘과 물질 중에서 일부는 주님을 위해 쓰는 정도가 아닙니까?

## “2개의 십자가” 마태복음 16:21-28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 주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한번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진실한 신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참 고백으로 만들어 주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준은 바로 '두 번째 십자가'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오셨을 때 그 최고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똑바로 알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때로부터"라고 어떤 기준 시간을 말씀합니다. 그 기준점은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고백을 한 바로 그 시점부터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다음 단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

거서는 결코 안 됩니다."라고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온 말 같지만,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장차 오실 메시야에 대한 기대감이고 이런 기대감에 같이 물들어 있던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메시야만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메시야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메시야로서 당연히 해 주어야 할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필연적인 의무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순전히 세속적인 메시야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야가 로마군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가 이제 눈앞에서 만나고

야 하겠지."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메시야 상을 마음대로 정하면서 성도가 되겠다고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보다도 당신의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겨우 죄 사함인지 뭔지 하는 것뿐이야? 훨씬 더 급한 내 인생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부터 당장 좀 풀리도록 해주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수도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라고 책망하십니다.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따끔한 책망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과 입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던 사단을 두고 하신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럼 귀한 첫 신앙 고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라고 생각하십니다. 다른 것들 다 제쳐 놓고 먼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게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취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대속의 은혜를 진실하게 고백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처럼 '믿는 십자가'를 자신의 심령에 확고하게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십자가는 지는 십자가에 대한 의무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2번째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에게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 원리를 적용시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자기 십자가' 정도의 투자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26절에서 하시는 말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란 바로 우리의 생명,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영생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인생 최대 최고의 경주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그 주님 따라가는 길에 필연적으로 우리 어깨에 지게 되어 있는 성도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피하려 하다가 영생을 놓치는 일생일대의 과오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에 헌신함으로써 영생을 얻

사도 바울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고 갔던 순교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두고 우리는 끄끙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천국에서 쓸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두 번째 십자가' 즉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닥치게 되는 고난 역시 필연적임을 깨닫고, '내 뒤통에 태인 십자가'를 희생과 충성으로써 끝까지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최고의 신앙고백이 멋지고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 꼭 동반되어야 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를 따르는 제자에게도 또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 고난에 가까이 동참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고백은 진실한 것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두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진짜 신자'와 '가짜 교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다들 '임으로는 시인'했으니 겉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서는 그 입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늘 간직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희생과 충성의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Sang78us@yahoo.com

낙심케 하는 상황들

낙심(落心)이 무엇인가?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물체가, 땅에 그대로 수직 낙하 하듯이 툭 떨어지는 것과 같다. 사막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질 때가 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돈 문제를 제일 많이 이야기한다. 갑작스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요구될 때가 그러할 것이다. 교회에 오래된 개스관에 작은 구멍이 났는데 이를 찾아 땀질 하는데, 칠천오백불 한국 돈으로 천만원이 나왔다. 에어컨 콤프레사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낙후된 것을 고치는데, 이전오백불이 나왔다. 갑자기, 예산에 없는 돈이 요청되니 '이게 뭐지?'하는 마음이 들었다. 동시에 성도들의 가정이 생각났다. 그래도 교회는 함께 나누어 내면 되는데, 만약에 개인 가정에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기면 아마도 마음이 떨경하

가 소의 삶에 박힐 듯 문혀서, 너무 열심히 머리를 디밀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의 잘못된 몰두가 부모에게는 미래의 걱정이 되어 한숨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보며 부모가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내가 한푼이라도 더 벌어서, 이놈 뒷바라지를 해 줘야 험한 세상 살아가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부모가 이민 땅에서 자기 인생 살기도 힘든데, 자식의 인생까지 두배로 살아 주어야 하니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다. 자식의 몰두가 부모에게는 낙심이 된다.

낙심, 긍정하는 믿음

심방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 들으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 "삶에 낙심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낙심의 멍에 빠져 매우 힘들고 어렵겠지만,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만사를 긍정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이다. 시

뒋혀 있는 이들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낙심할 만한 상황 자체를 이상하게 여겨 말라는 것이다. 원래 그렇게 연약하여 낙심이 되는 것이 인생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한경직 목사님은 늘 자신을 가리켜 "죄 덩어리 인생"이라고 고백했다. 실수와 연약함들로 둘러 쌓인 인생, 그 연원이 무엇인가? 죄 덩어리라는 원형질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모든 정황들을 보면, 연약하고 낙심하고 낙망하며, 좌절하고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한마디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어서, 낙심하고 낙망할 수 밖에 없는 원래 그런 이들을 택하셨기에, 그런 본질의 인생이 낙심천만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한다. 캄캄한 어둠의 공간 속에 가늘

그래서 어떤 성도는 죄를 지으면서도 동시에 회개할 준비를 한다고 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혼내실 거라고, 사람 목사앞에서 신앙고백을 한다. 이렇다가 한 대맞지, 빨리 회개해야지 하며 스스로 징계를 말하기도 한다. 어찌 생각하면,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든지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형이 "죄 덩어리"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천로역정같은 삶에 낙심과 회개를 반복하며 이렇게 저렇게 오직 은혜로 빚어져 가는 것이다. 낙심되는 상황을 인정하고, 그 모든 낙심의 상황에 대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에는 회복과 축복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축복의 공식

믿음의 부자들을 보라. 거룩한 부자들에게는 축복의 공식이 있다. 대부분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리에서 출발한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기독교의 본산지요 신앙 부흥이 일어났던 영국과 서유럽 교회가 어찌하여 교회가 텅 비게 되었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근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셀비치에서 이희은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의 영국의 기독교인 수는 계속 감소하여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27% 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율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2003-2004년에 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모두 14,000명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서술형 질문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91%의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비슷한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교회지도자들 진화론적 역사관 타협  
교회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

그 첫 번째 이유가 "교회는 성경을 믿는 이유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비판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히 대답해주고 성경의 권위를 지지하는 증거들로 그들의 믿음을 방어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진화론적 역사관에 타협하였고 성경을 변증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디. 그러자 많은 교인들은 실망하여 교회를 떠났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미국으로 망명한 조셉 톤(Josef Ton) 루마니아 목사는 1982년 4월 15일, 목요일자 호주의 크리스천 신문 'New Life'에서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서유럽의 기독교가 파괴된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중 하나는 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이론은 성경과 우리의 신앙에 진화론을 접목시킨 바로 그것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도덕적 생활의 거룩함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 교회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원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영국 국교회는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한 것에 대해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만약 교회 지도자들이 창세기 첫 구절부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도덕적 영적 문제뿐 아니라 역사, 고고학, 과학 등 말씀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final authority)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타협하여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수십억 년의 세속적 연대와 진화론적 세계관을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동시에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속성, 죄와 사망에 대한 가르침, 복음의 능력을 서서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일부가 진정한 문자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면, 구원과 성도의 삶에 대한 가르침들을 포함한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다.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교만하여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그 영광된 자리를 지켜주시고자 미리 안전편을 찾아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축복의 절대 방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를 친히 사랑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왜? 사랑하면 다 주시기 때문이다.

최고의 품격있는 인생

인생의 가치는 그의 자랑거리를 들어보면 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육체미 자랑, 마술님 자랑이 제일 많다. 그러나 최고의 자랑 중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자랑'밖에 없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없으니,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이다. 최고의 품격을 가진 인생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를 친히 사랑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왜? 사랑하면 다 주시기 때문이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 가운데 예수님 사랑

- 낙심(落心), 회복과 축복 -

면서, 마음 떨어지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교회 청년 사업가가 어느 날 세금 폭탄을 맞아 주유소 두 개 하던 것 중에서 하나를 팔게 되었다. 학교 공부보다 사업을 먼저 배우겠다고 시작해서 겨우 안정이 될까 하던 차에 일어난 정말 마음이 툭 떨어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남아 있는 나머지 가게를 잘 운영하고, 그 사이에 결혼도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젊음을 바꾸어 노력했던 사업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툭 하고 떨어졌을 것이다.

돈 문제는 그나마 견딜만 할 것이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딸을 명문 가문에 결혼을 시키고 크게 축하를 받았는데, 뒤에 사위가 그만 이단에 빠진 것을 알았다. 먹고 사는 문제는 참고 견디면 되는 데, 죽고 사는 신앙사상의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기에 절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 부모에게 어떻게 지내시냐? 물어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부모의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어떤 분은 자녀의 미래 때문에 낙심한다. 아이가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공부를 안하고 늘 어두컴컴한 방에서 열심히 게임에 몰두 한다는 것이다. 몰두(沒頭)가 무엇인가? 쇠파리

시한 '긍정의 신념, 긍정 정서 증진을 위한 긍정 심리치료법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끼워 맞추기' 같아 보일지라도,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삶은 원래부터 '절대 긍정'의 삶이기 때문이다.

낙심되는 상황에서 긍정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그럼 낙심할 이유도 없겠네요." 맞는 말이지만, 좋은 생각은 아니다.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다. 낙심되고 상한 심령을 반석같은 주님의 말씀 위에 '탁' 하니 얹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물 위쪽을 걷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 내려야 한다. 낙심의 상황에서, 이를 떨치고 일어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반석같은 주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죄 덩어리 인생

믿음을 붙들 때,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인가? 믿음이 적용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아야 한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상에서 낙심될 조건에 부

고 작은 빛이 들어온 것처럼, 회복의 빛이 비취진다. 믿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주신다.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낙심하지 말아라"는 음성이다. 이 음성을 수용하는 순간, 은혜의 사슬이 그를 붙잡아 매고서, 마침내 소망의 언덕을 향해 씩씩하게 달려갈 것이다.

죄인을 불드시는 은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낙심이 됩니다. 점점 더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니, 주님이 끝내지 않으면, 결코 끝낼 수도 없으니 더 답답할 뿐입니다." 답을 드린다. "성도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받은 증거입니다. 세상을 막 살 수 없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 그것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 손 붙잡을 힘조차 없어도, 떨어져 망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가 성도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옴의 친구들처럼 해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다 보면, 결코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을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낙심의 상황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마침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그 믿음 변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런 수많은 낙심천만한 상황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였다.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장인에게 생명을 빼앗긴 위기를 지났다. 그러나 마침내 광야의 연단을 지나,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지 않았는가? 요셉은 노예소년이었다. 상처 많은 인생이다. 엄마는 왜 나를 두고 일찍 가셨나요? 아빠는 왜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요? 형으로서 동생 하나 돌볼 수 없나요? 형제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할 수 있나요? 그가 가진 상처들은 평생 그가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아도 핑계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한 분의 은혜 때문에 세상의 거친 광야를 통과하는 승리자가 되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두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거기서 믿음으로 출발하면 된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하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긴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지, 왜 그런 낙심천만한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는 분명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폰대와 라떼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성도님... 우리가 안내 받은 테이블로...

어서 그들의 외모와 젊은 활기... 주문한 음식이 양쪽 테이블...

유학생들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괜히 나도 흐뭇했다. 남편과 식사를 하며 학생들이...

하며 다그치듯 물었다. 남편은 "아니, 신경 안 썼는데 왜?" 하며 되물었다. 나는 약간 격앙된...

운 한국음식을 먹으며 즐겁고 행복하게 식사하던 예쁜 학생들을 흥분하고 지적인 어른스럽게...

게 자주 쓰는 "나 때는 말이야"를 풍자하는 표현이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다 잘 되라고 해주는 이야기이고, 다 맞는 얘기들인데 이 정도도 젊은...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상의 "한국산 전기차도 예력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미국 재계 최대 이익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백악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했다. 상의 측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에 대해 비판하며 과도한 보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의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의 사무소에서 가진 한국 특과원단과 간담회에서 IRA와 관련해 "한국의 실망과 분노를 이해한다"라며...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IRA에 대한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했다며 "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주된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통합 심화'와 '미국의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라는 두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는 대중 수출 통제 및 투자 제한에 대해 "정부가 안보를 위해 거래제한 안 될 일부 품목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공감했다. 또 "현재 환경에서 미국이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급망 위기를 이용해 국내 보호주의를 사실상 강화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며 "우리는 한국 등 우방과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항이 관리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한국을 향해 "제조업뿐 아니라 혁신 역량이 뛰어나다.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 간 공급망 구축)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보다 더 중요한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 바꾼 머스크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무료 제공"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에 위성통신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을 무기한으로 들일 수 없다"며 미국 정부에 비용 대납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머스크는 16일(한국시간) 트위터에 "스타링크가 여전히 손실을 입고 있다. 다른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세계 혜택을 받고 있지만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료로 (위성통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료로 (위성통신을) 서비스하기 위한) 자금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적었다.

스타링크는 머스크가 경영하는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무선 인터넷용 인공위성 서비스다.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8개월가량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러시아의 개전 닷새만인 지난 2월 27일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정보통신부 장관이 스타링크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자 즉각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전날 트위터에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로 지원한) 비용 회수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에 무기한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재정 지원 방식의 대납을 요구했다.

머스크는 스타링크 서비스의 1년 사용료로 미국 정부에 4억 달러(약 5700억원)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스페이스X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위성통신 업체를 우선으로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든 "강달러 걱정 안해, 미국 경제는 강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달러 강세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독주는 달러 강세는 해외에서 수익을 미국 기업의 실적을 강화하고, 한국 일본 유럽처럼 활발하게 교역하는 국가의 외환위기를 부를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며 걱정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달러 강세를 걱정하지 않는다. 경제는 지독히 강하다(strong as hell)"며 "내가 걱정하는 건 세계의 나머지 부분이다. 다른 국가의 경제 성장과 현실한 정책의 부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중대하다"며 최근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리드 트러스 영국 총리의 경제정책을 지목해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만 아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 '부자 감세'를 일부 철회했다. 퀴지 콰팅 당시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3일 집권 보수당 연례총회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감세를 주도했던 트러스 총리는 트위터에 콰팅 장관의 성명을 공유했다. 콰팅 장관은 해임됐고 제러미 헌트 장관이 새롭게 임명됐다.

백악관은 그동안 트러스 총리의 정책과 관련해 언급을 자제했다. 하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트러스 총리를 지목한 비판적 발언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서 유독 탄탄한 미국 경제 상황을 강조할 의도로 '맹방' 영국의 정책 실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중간선거를 통해 집권 기간의 전반부를 평가받게 된다.

달러화는 올해 주요 경제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몸값을 높였다. 올해 초 달러당 1200원을 밑돌았던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00원대로 뛰

어울랐다. 유로, 엔(일본), 파운드(영국), 캐나다 달러, 코로나(스웨덴), 스위스프랑의 6개국 통화의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미국 경제지 불룸버그 집계에서 113.311달러로 치솟았다.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런 달러화 강세를 이끈 건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강한 긴축이다. 연준은 지난달까지 3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속으로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의 현행 기준금리는 3.00~3.25%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경제채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달러 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달러 가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란 시위 한 달... "독재자에 죽음을" 구호 더 강해졌다



'히잡 의문사'에서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16일(현지시간)로 한 달을 맞았다. 처음에는 20대 여성들이 히잡을 불태우고 머리카락을 자르며 항의하는 시위였지만 이제는 성별·나이·직업에 상관없이 다수가 "여성, 생명, 자유"와 "독재자에게 죽음을"을 외친다. 시위가 거세지면서 이란 정부의 탄압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미성년자 32명을 포함해 최소 240명이 숨졌다는 인권단체 보고가 있다.

시위가 격화하는 이유는 히잡 착용에 대한 반발이 전부가 아니다. 경제난과 빈부격차 심화, 지지부진한 개혁·개방 등이 젊은 세대 분노의 근원이다. 이란의 지난 8월 물가상승률은 52.2%다. 닭고기 값은 10년 전보다 20배 비싸졌고 식용유 가격은 40배 올랐다. 지난 5년 동안 이란 통화 리알의 가치는 약 90% 하락했다. 그 결과 빈곤층의 비율은 2015년 20%에서 30%대로 증가했으며 한때 60%였던 중산층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당선된 강경 보수파 에브라힘 라히시 이란 대통령은 이란핵합의(JCPOA) 복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개혁·개방에 대한 젊은 층의 희망을 꺾었다.

이란 활동가 셰이드 알리 하사니(35)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사람들은 차별과 부당함, 가난에 질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가 과거와 다른 건 상당수 가담자가 이슬람 공화국의 종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남 바킬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중동·북아프리카 프로그램 부소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최근 이란 국가대표 축구팀의 시위 지지 행동을 예로 들며 "2019년 시위처럼 (이란 정부가) 가혹한 방식으로 시위대를 억압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군대에 균열이 생기면 반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변화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카네기유럽'은 "독재자에게 죽음을"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제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정치범 투옥 장소로 악명 높은 테헤란 북부 예빈교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란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곳엔 최근 반정부 시위에서 체포된 수백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내부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중국식 현대화' 란?... 시 언급 후 대대적 선전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국에서 '중국식 현대화' 표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당 대회를 거쳐 3연임을 시작할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한 뒤 이에 대한 선전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시 주석은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 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지금부터 중국 공산당의 핵심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전 인민을 단결하여 이끄는 것"이라며 중국식 현대화를 꺼냈다. 이어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 현대화 실현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중국은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좋은 방안과 역량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연구소의 인문학 연구원은 17일 중국 매체 신경보에 "산업혁명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생산력 측면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 자본주의가 우월하다고 여겨졌지만 이것이 현대화에 한 가지 방법만 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구 14억명의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현대화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독자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다. 이 매체는 중국은 차편전성 이후 신해혁명(1911년)까지 물질적 차원의 현대화에 힘썼고 신해혁명부터 신중국 성립(1949년)까지 서구 자본주의 모델에 따른 현대화에 주력했지만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노선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시 주석이 집권 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확장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대일로가 대형 인프라 건설을 매개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동남아,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넓히는 것이려면 중국식 현대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여성 108명, 지국 돌아왔다...러 포로교환



1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여성 포로들이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을 통해 자국으로 돌아왔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또 다른 대규모 포로 교환이 있었다"며 "108명의 여성이 귀환한다. 석방된 포로 전원이 여성인 것은 전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중 함께 붙잡혀 있던 모녀들이 있었고, 37명은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최후 항전 근거지인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항복한 이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군복을 입은 이들을 포함해 수십 명의 여성이 돌아오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포로 교환은 지난달 22일 총 270명 규모로 실시된 포로 교환에 이어 최대 규모다. 당시 우크라이나 포로 215명, 러시아 포로 55명이 각각 자국으로 돌아간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 역시 전쟁이 시작된 지만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민간선박 선원 72명이 귀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모스크바로 옮겨져 의료 및 정신적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V. 신론 (4)

D. 하나님의 사역 (the Works of God)

조직신학 신론에서는 2가지 큰 주제를 다루는데 1)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2)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대해 생각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에 대해 생각하겠다.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 둘째 하나님의 예정; 셋째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다.

1. 하나님의 작정 (God's decrees)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작정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신앙이다.

렘 1: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말씀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소요리 문답 7번에서 잘 설명이 된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The decrees of God are his eternal purpose,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whereby, for his own glory, he hath foreordained whatsoever comes to pass.)

하나님의 작정의 본질을 살펴보면:

1)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은 종종 하나님의 경륜 (God's counsel)이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의미는 성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간의 협의를 암시하고 있다. (intercommunion between the three persons of the Godhead).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작정)을 언급하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과 관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렘 3:10-11). "According to the eternal purpose which He purposed in Christ Jesus our Lord."

여기에서 사용된 프로테신 (κατὰ πρόθεσιν) 의 원형은 "프로테시스" (πρόθεσις) 인데, 이것은 목적 혹은 계획을 의미한다. 영원부터 삼위 하나님의 감추어진

목적과 계획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신비의 계시인데, 그것은 곧은 피조물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여러가지 지혜를 나타내는 기관이 된다.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요,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기관이 아니다. 만세 전에 삼위 하나님의 작정 (경륜) 가운데 세워진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기관이다.

2)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9)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하나님의 작정이 구체적으로 시간 안에서 나타난 것이 곧 창조와 구속과 섭리가 된다. 창조와 구속과 섭리가 역사적인 시간 속에 나타난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되어진 일들이다.

3)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의미이다.

4)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적이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신 계획은 변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5)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피조물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

6) 하나님의 작정은 전포괄적이다. (All-Comprehensive)

하나님의 작정은 물리적 영역, 영적 영역, 도덕적 영역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작정은 선한 일들, 악한 일들, 우리가 보기에 우연한 사건들,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7) 죄와 악에 대해서는 허용적 (permissive)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발생한다면, 세상의 존재하는 악과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세상의 악과 죄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가? (Is God responsible for sin?)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다음의 사실들을 명심해야 한다. a) 성경에는 하

성경은 이 2가지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

출애굽 사건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음을 반복해서 증거한다. (출 4:21; 9:12; 10:20; 11:10; 14:4; 14:8) 이와 동시에 성경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고 한다. (출 8:15, 32; 9:34)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같은 사건의 원인 (cause)이 되었음을 말한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바로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악으로 가득차 있고, 본질적으로 죄악을 선택한다. 선한 마

음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마다 악하며, 악을 선택하는 본성과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서 9:17-18,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출 14:17,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 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은 출애굽이라는 한 사건 속에서 일반적인 진리를 추론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건을 주장하고 계심을 가르친다.

삼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 이 사건의 원인(cause)은 사탄과 다윗이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대상 21:1)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라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삼하 24:1)

음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마다 악하며, 악을 선택하는 본성과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서 9:17-18,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출 14:17,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 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은 출애굽이라는 한 사건 속에서 일반적인 진리를 추론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건을 주장하고 계심을 가르친다.

삼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 이 사건의 원인(cause)은 사탄과 다윗이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대상 21:1)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라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삼하 24:1)

성경은 이 사건의 원인 (cause)이 하나님, 다윗, 그리고 사탄으로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탄을 이용하여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책임을 다윗에게 있음을 증거한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 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삼하 24:10)

옳은 경우를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옳은 재산과 자녀들을 해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다. (욘 1장) 옳은 자가 당한 이 재앙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 물론 2차 원인(secondary cause)은 악한 무리들(스바사람들)과 질병이었지만 그러나 옳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의 주도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한 고통이며, 이해 불가능한 이들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고백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한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다. "이르되 내가 모테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욘 1:21)

악한 무리들이 자기의 가축과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서 취하셨다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에게 큰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선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고통을 포함한 인도)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경적이며, 개혁주의 신앙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인간의 생각 (이론)을 서로 조화시키지 아니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1)은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 자신의 뜻으로 세우신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 원하시는 대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변치 않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창시자가 되시거나,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되거나 하지 않는다. 또한 제 2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은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보장된다." KHL0206@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Los Angeles, San Francisco, and New York.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9)



####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9) 방법9-1: 죄 앞에서 스스로에게 평안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죄와 그 뿌리에 대해 찔림을 주고 죄가 분출될 때마다 당신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평안하다고 말하려는 유혹을 경계하라. 대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 이와 같은 경청의 자세가 없

스도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라오디게아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상처들을 거짓되게 치료하고, 자신들에게 평화를 말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계 3:14)라고 말씀하셨다.

\* 당신이 두 가지 점을 주목했다면, 우리의 평화가 스스로 지어낸 평화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인지를 분

가지 모습, 거룩함, 능력,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치유와 평화를 구할 때 우리는 특별히 언약의 피, 즉 그분의 고난을 보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잃었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기 때문이다.

치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 성령의 힘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슬퍼하고 한다. 그런 행동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죄에서 완전히 떠났다고 착각한다. 또한 한 시적으로 마음에 만족을 주는 평화를 누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아직도 어리석음이 은밀히 도사리고 있다. 적어도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자신의 죄를 혐오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연약해져서 썩

####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말씀이 믿음 안으로 융화되어 순종하는 자

면 당신의 마음은 죄의 속임수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1)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위대한 특권이 주권이다

하나님은 ‘궁홀히 여기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기록하신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평화를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위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한 은혜 중에 하나이다. 이 은혜를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뜻에 따라 베푸신다.

(2)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특권이기도 하다.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평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성자이신 예수 그리

별해 주는 몇 가지 규칙들을 소개하겠다.

(3)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분별하는 몇 가지 규칙

\* 규칙1. 자신의 죄를 증오하지 않는다면 결코 참된 평화는 오지 않는다.

확실히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평화를 말한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죄를 가증히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자신들을 혐오하지도 않는다. 죄를 증오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에 의해 치유받기보다는 스스로를 치료하는 셈이 된다. 이에 반해 치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찔렀다는 사실을 알고 애통하게 된다. (속 12:10) 더 나아가 그 분에게 상처를 준 자신들의 죄를 증오하게 된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접하고 그 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여러

자신의 죄를 증오하게 된다. 치유와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치유자를 찾아가서 올바른 방법으로 치유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언약의 약속 위에서 마음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한편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상처를 준 죄를 증오하고 혐오하지 않는다면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평화이다. 따라서 상처의 허물만 벗겼을 뿐 그 내부는 그대로 있는 셈이 되어 상처는 더욱 곪고 부패해져 나중에 더 큰 위험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죄의 고통만 느낄 뿐 죄와 동반되는 불결함과 타락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자세를 우리는 피해야 한다. 신앙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평화의 뿌리에는 속임수가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자비와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외형상으로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의 삶을 살기도 한다. 심지어 그

게 된다.

\* 규칙2. 자신에게 평안을 말하는 것은 경박한 행동이다.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비의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말씀이 믿음 안으로 융화되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영혼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

\* 규칙3.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평화는 거짓 평화이다.

우리의 영혼이 올바르게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똑같이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죄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극히 작은 죄분이다. 하나님의 눈은 매우 정결해서 그 앞에서는 부정이 설 수가 없다.

younsklee@hotmail.com

### 인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10) 독거중년

장수시대로 들면서 50, 60대를 중년이라 한다면 독거노인이 아닌 독거중년이란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모임 때 새로 참석하신 한 분이 ‘혼자 나이 먹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임에 참석했다’는 분이 계셨는데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의 대다수는 50, 60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싱글로, 장성한 자식을 떠나보내고 나 홀로 사는 만큼 크게 동감할 것 같습니다.

노년기를 앞둔 중년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수로 1위에 오른 항목은 ‘마음에 평화’였다고 하니 그만큼 두려움과 근심 속에 평안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의 36%가 외로움을 호소한다고 하지요. 배우자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루어진 통계일지라도 싱글들의 경우, 그 수치는 당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모임에 와서 다 함께 식사할 때면 ‘혼밥’(혼자서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 싫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니 참 좋다고들 말합니다. 남성들은 물론이고 여성들까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듭니다.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외로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원수 마귀가 죄와 사망에 범으로 모든 인생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구나 지금 세상의 상황은 전염병과 갖가지 재앙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으므로 더한 것 같습니다.

싱글들의 경우 내게 배우자가 없게 된다면 이런 문제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느끼막이 만난 새 배우자가 내가 늙어 힘없을 때 함께 하며 돌봐준다는 보장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외롭다는 감정에 과몰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묶인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나로 부터 시선을 떼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돌아보면서 먼 선교지의 어린이에게 사랑 하나라도 보내는 마음을 가진다면 외롭다는 마음은 어쩌면 조금은 사치스러운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성들의 경우 좀 더 많은 수가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동반자 없이도 살 수 있노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기쁨과 감사로 매끼 식사를 하고 이제 애들 떠나보내고 새롭게 얻은 시간을 이용하여 틈나는 대로 성경보고 기도하고 그동안 못하던 취미활동도 더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의지를 기울여 생각을 바꾸고자 할 때 여러 부정적인 감정에서 헤어나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7)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한부모 모임 인도자들께서, 걱정과 외로움에 놀린 참석자들에게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의 의를 힘입을 때만 살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hyojungyoo2@yahoo.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라성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850)423-9700, Fax: (702)257-9191 6552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다민족교회</b>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기도회: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821-1112, esto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882 8200 Morris Rd., Lansdale, PA 19468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b>벨렐교회</b>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디너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화, 목, 금, 토, 일, 찬양부흥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25-4579, www.bostonl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948
<b>새생명안인교회</b> 담임목사: 고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전 7:00(목) 새 생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 Tel: (850)423-9700, Fax: (702)257-919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b>알칸사제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v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422-0288, Fax: (215)422-9037 706 Wilmer Rd., Horseshoe, PA 19044	<b>킬린은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부흥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타코마안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생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l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가장 위대했던 미국 대통령들의 공통점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 중에 하나는 사우스 타코다주의 러쉬모어 마운틴에 네 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일명 미국의 큰 바위 얼굴인 러쉬모어 마운틴 국립기념지입니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러쉬모어

마운틴 국립기념지에는 왼쪽부터 보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리고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독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건국을 상징하는 대통령이고,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수필로 작성하고, 루이지애나주를 매입하여 미국의 영토를 확장한 미국의 성장을 상징하는 대통령이고,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서부의 자연보호에 공헌하였고, 파나마 운하를 구축하여 미국의 지위를 한층 세계적으로 올려놓은 미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대통령이고,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과 남북전쟁을 종식시켜 미국의 연방국가를 지켜낸 미

국의 보존을 상징하는 대통령입니다.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 성장, 발전과 보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인물이 러쉬모어 마운틴에 조각된 네 명의 미국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이 네 명의 대통령으로부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활이념으로 삼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취임 연설에서 "하나님과 성경 없는 세계를 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고, 토머스 제퍼슨은 "우리나라는 성경을 기초로 삼아 서 있다"고 했고, 링컨은 그의 사무실에 성경을 두고 늘 읽었으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늘 말했고, 루즈벨트는 "어떤 일을 하는 사

람이든지 자기의 인생을 참되게 살고자 한다면 성경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은 신실한 성도로 매일 새벽 4시에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한 후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영감으로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작성하였고, 성경의 위대성을 극찬하며 매일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았습니 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말씀의 생활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 취임식 때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약 1:22-23)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은 삶을 살았던 인물로, 그의 생애는 성경에서 출발하여,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일하다가, 성경 안에서 삶을 마친 '오직 성경'의 삶이었습니다. 나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심심할 때, 기분이 외로울 때, 무엇인가 해답을 찾고자 할 때, 자신의 생각에 맞는 구절을 찾고자 할 때에만 찾는 성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이며 우리 길에 빛입니다. (시 119:105)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든 삶의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생활화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syrchurch@gmail.com

인/터/뷰

지명현 목사 (Soriel for Church & Mission 대표)

제3기 사역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찬양사역자로 잘 알려져 있고 지난 10년 동안 나성영락교회에서 사역해오던 지명현 목사가 금번 Soriel For Church & Mission을 통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다. 지 목사를 만나 새로운 사역소개와 함께 비전을 들어본다. "찬양 사역자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저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찬양과 말씀, 간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세워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땅 LA를 시작으로 미국 50개 주는 물론 한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와 선교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라고 입을 여는 Soriel For Church & Mission 대표 지명현 목사, 그는 지난 9월 30일 그동안 사역하며 정들었던 나성영락교회를 떠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찬양과 말씀을 통한 기독교 문화를 새롭게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나성영락교회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지난 날의 모든 시간은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사랑도 참 많이 받았기에 헤어짐이 참으

로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지 목사는 "Soriel for Church & Mission 미니스트리 사역을 펼쳐나가기로 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진 작은 교회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버티며 최선을 다해 사역해 나가는 선교지를 다니며 찬양과 복음 전도 사역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1990년 소리엘로 찬양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사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한다. 먼저 소리엘로 활동하던 1990년부터 2012년까지를 1기 사역으로 정의했다. 그는 1990년 제1회 CBS 기독교 방송창작복음성가제에서 '주는 나의'라는 곡으로 은상을 수상하며 데뷔했고 수 천 여회 이상 라이브 집회 및 대규모 콘서트를 가져왔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20개국 이상의 국가를 다니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 당시의 상황을 "1기 사역을 할 당시는 한국교회에 찬양 사역이 매우 활

발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찬양콘서트를 열었을 때도 인기 대중가수들의 콘서트 열기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호응이 있었던 때였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회상한다. 그는 그 당시 자신을 내적으로도 단단하게 하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예수전도단(YWAM)에서 DTS 훈련을 받았다. 훈련 중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학부때 성악을 전공했던 한세대학교 신대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까지 마치고 있었다. 이후 2007년에 미국 LA로 유학을 온 뒤, 갈보리채플(척 스미스)에서 예배학과 목회학을 공부하게 됐다. 지 목사는 2013년 나성영락교회에 부임해서 2022년 사임할 때까지를 자신의 두 번째 즉 2기 사역이라 설명했다. 나성영락교회에서는 찬양 전담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했으며 2014년 3월부터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되었다. 사역은 찬양부, 선교부 교수사역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번째 사역 즉 제3기 사역은 바로 "Soriel for Church & Mission"에서의 사역이라며 "Soriel for Church & Mission은 소리엘 활동을 할 때 만들었

던 단체입니다. 그동안 교회사역에 충실 하느라 사역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지 않았는데 DTS를 통해 주님께 받은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 Soriel for Church & Mission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사역 내용을 소개했다. 사역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찬양과 기독교 문화 그리고 방송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리고 전하는 사역 △둘째 교회와 선교지에 집회와 사역 그리고 다양한 지원과 후원을 통해 동역하는 사역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세계를 향해 나아가 찬양과 말씀, 간증이 있는 부흥집회를 인도하며, 다양한 워십집회 및 콘서트를 주최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 및 현지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을 섬기하여 다양한 찬양문화집회를 주최, 그리고 라디오 또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여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미자립교회 및 선교지를 방문, 집회를 인도하여 교회와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사역을 실시하며, 열약한 교회 및 선교지에 찬양 세미나 등을 열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 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선교지를 돕는 사역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초 사우스베이 에베네셀교회를 방문하여 찬양과 말씀 집회를 가졌고 이어서 볼티모어 벨벳교회에서 갖게 되는 미주기아대책(KAFHI) 20주년 포럼에서 특별 찬양을 그리고 캐나다 동부지역 4



지명현 목사

개 교회와 아리조나, 텍사스 미들랜드까지 계속되는 집회 일정을 준비하고 진행중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3기 사역은 1990년부터 시작된 소리엘 사역과 목회사역 등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 덧붙이며 "저의 3기 사역이 미주한인교회와 선교지에 다시 한 번 찬양과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세대 찬양사역자로서 현재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찬양클리닉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앞으로의 비전도 들려주었다. 이 사역에 관한 후원과 문의는 (951)870-3424/samueljee@gmail.com으로 하면된다.

(박준호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ew York, New Jersey, Hawaii, and Mexico.

# 동부교계 게시판

## 교육 담당 사역자 청빙 안내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 감리교회 (담임 김진우 목사)는 2세 교육 분야를 담당할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안에서 신앙, 문화,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실행해 가실 수 있는 분을 찾는다.

▲문의: 교회 목회협조위원회 kiljiy@gmail.com

##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 은퇴 및 임직 예배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담임 박춘수 목사)에서 안수 집사 은퇴 및 목사 안수, 안수 집사 그리고, 명예 권사 및 시무 권사 임직 예배를 10월 30일(주일) 오후 4시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주소: 220 Berry Hill Rd, Syosset, NY 11791

▲문의: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516-921-8040

## 22 뉴욕 목회자 복음과 성령세미나

뉴욕갠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에서 뉴욕목회자 복음과 성령 세미나를 11월 16일(수) 부터 12월 14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상목 목사(이러리한인장로교회)를 강사로 열린다. (점심 식사 제공) 주소: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문의: 뉴욕갠세마네교회 516-520-2004, 917-693-2763

##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부교역자 청빙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 풀타임 부교역자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정규신학 대학원에서 M.Div 이상 학위, 미국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음, 영어로 어린이사역 설교가 가능하며 어린이사역에 열정이 있는 분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성장과정, 신앙여정, 가족소개, 가족사진), 추천서 2통,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음성 혹은 영상 파일 1편, M.Div 졸업 및 안수 증명서를 밑에 주소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접수시 경우 문의메일로 PDF 파일을 첨부하여 보내면 된다.) 접수마감: 11월 12일(토) 주소: Korean First Presbyterian Church, Attn: Elder Frank Park(청빙위원회) 318 Stage Coach Trail, Greensboro, NC 27409

웹사이트: www.k1pc.org ▲문의 및 접수: 박경환 장로 fkpark7@gmail.com

## 퀸즈장로교회 Fall Family Festival

퀸즈장로교회 (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가을 가족 축제 집회가 10월 31(월) 오후 5:30에 열린다. 대상은 영아부~고등부이며 예배와 게임 및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간식, 선물,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문의: 718-886-4040

##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정기총회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희복 목사) 제48회 정기총회가 10월 27일(목) 오전 10시 하크네시아 교회(전광성 목사 시무)에서 개최한다.

▲문의: 718-279-1414

## 뉴욕동원장로교회 영유아부 사역자 청빙

뉴욕동원장로교회(담임 박희근 목사)에서는 소명과 열정이 있는 파트타임 영유아부 (Pre-Kindergarten) 사역자를 청빙한다. 주일 예배는 한국어 혹은 영어로 진행되고, 영어로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된다. 담당사역: 영유아들을 위한 주일 예배 인도, 교사지도 및 학부모 상담, 교육부서의 교회 행사 진행 참여 자격요건: 신학을 공부하신 유아교육 전공자 우대 (현직 유아원 교사) 혹은 신학을 배우지 않았으나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어 설교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사진 포함 이력서 (세례 등 신앙경력 포함) 최종학교 졸업 / 재학증명서(신학교), 모든서류는 PDF 파일을 이메일로만 제출 가능

▲문의 및 서류 제출: 박희근 담임목사 917-254-0887, heepark91@yahoo.com

## 뉴욕센트럴교회 임직감사예배, 30인의 교회일꾼 세위

### 시무장로 3인, 안수집사 10인, 시무권사 17인 임직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임직감사예배를 10월 9일(주일) 오후 5시에 드리고 30인의 교회일꾼들을 세웠다. 김재열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기도 조덕남 목사(뉴저지세교회), 성경봉독 차인규 목사, 설교말씀 조문희 목사(전 총회장, 뉴욕은누리장로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문희 목사는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고린도전서 4:1-5)”을 주제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지상에서 있는 단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긍지를 가지고 그러나 겸손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성하라”고 부탁했다. 조 목사는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충성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따라 충성을 하면서, 내외지보다 더 강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원으로 기쁨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충성하라. 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신실하게 충성하여, 주님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임직자와 성도들이 다 되라”고 말

씀을 선포했다.

이어 김재열 목사의 사회로 임직식이 진행됐다. 임직자는 시무장로 3인(김성문 유성열 한상준), 안수집사 10인(김요한 김용호 김태호 김형범 문휘섭 배교이), 성경봉독 차인규 목사, 설교말씀 조문희 목사(전 총회장, 뉴욕은누리장로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문희 목사는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고린도전서 4:1-5)”을 주제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지상에서 있는 단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긍지를 가지고 그러나 겸손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충성하라”고 부탁했다. 조 목사는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충성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따라 충성을 하면서, 내외지보다 더 강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원으로 기쁨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충성하라. 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신실하게 충성하여, 주님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임직자와 성도들이 다 되라”고 말

(정리: 김재상 기자)



박찬섭 목사가 취임예배 중 소감을 전하고 있다

## 뉴저지초대교회 8대 박찬섭 담임목사 취임예배

###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의 여정을 걷는 목회자 될 것

뉴저지초대교회는 10월 16일 주일 오후 4시에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리고 박찬섭 목사가 8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박찬섭 목사는 41세로 한국에서 한세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미국에 유학을 와 BTS(M.Div)와 골든콘월신학교(Th.M)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D.Min과정을 중이다. 2011년 미장로교(PCA)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뉴저지초대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 2018년에 LA한길교회 담임목사로 목회자를 옮겼다가 4년 만에 다시 초대교회의 청빙을 받았다. 박찬섭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깊은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정직한 목회자로서 신실한 말씀의 종이 되어 교회에서 주신 권위로 군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겸손히 나누고 기쁨으로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의 여정을 걷

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뉴저지초대교회 전임 담임목회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는 “은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적교회로 하나님앞에 헌신하라”고 권면적 축사를 했으며 한규삼 목사(충현교회)는 “얼마 전에 박 목사가 한국에 나와 만났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서 보았던 눈물을 보았다”며, “초대교회 담임목사가 된 것에 감사하다는 진정 어린 눈물이었다”고 했다. 직전 담임이었던 박형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를 보내주셨다. 초대교회를 잘 알고 필요한 목사가 와서 반갑다. 성도들이 할 일은 목사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나라 꿈을 이루는 것이다. 나도 열심히 응원하며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담임목사 취임식 후에 박찬섭 목사가 임직식을 인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제33회 정기총회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33회 정기총회

### 신임회장 정인수 목사, 부회장 박병섭 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33회 정기총회가 10월 17일(월) 오후 7시 뉴욕새사람교회(담임 이종원 목사)에서 열려 예배와 회무 시간을 가졌다. 회무에 앞서 정인수 목사(부회장)의 사회와 기도로 시작된 1부예배는 성경봉독 김점미 전도사(서기), 설교 김경수 목사(회장), 축도 이용호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경수 목사는 “나아만을 살린 복음(열왕기하 5:1-14)”이란 제목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문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김경수 목사(회장) 사회로 시작된 회무는 서기의 회원점명이 있는 후 의장 김경수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각 부서의 보고를 받은 뒤 관례에 따라 증경회장을 대표하여 이용호 목사가 임후보자를 추천했으며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은 단 회장 정인수 목사, 부회장 박병섭 목사를 선출했으며 여자 부회장은 임원회에 위임했다. 신임회장 정인수 목사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 것이며, 선배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동문들에게 그 뜻을 잘 전달하는 교두부 역할과 주님께서 이 땅에 화복을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임부회장 박병섭 목사는 “신임회장 정인수 목사를 잘 보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인수 목사(신임회장)가 폐회를 선언했다. (홍현숙 기자)



뉴욕센트럴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진행하고 있다



제9차 다민족선교대회 모든 순서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다함께 사진촬영을 했다

## 뉴욕장로연합회, 제9차 다민족선교대회 2022 개최

### “GO or SEND” 총 12팀의 “찬양과 선교나눔”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제9차 다민족선교대회 2022를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10월 16일(주일) 오후 5시부터 개최했다. 이날 선교대회 1부 예배는 박마이클 목사(한 마음침례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 황규복 장로의 대회사 및 기도, 뉴욕센트럴교회 엘리야 중창단의 특별찬양으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마가복음 16장 15-18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전하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뉴욕장로성가단(대표 전병삼 장로)의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삭개오야 내려오라-Alabara’, 다함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했다. 이어, 황규복 장로의 후원금전달, 송정훈 장로(준비위원장)의 인사 및 광고와 피터 용 박사(뉴욕중국크리스찬코탈 소사이터티 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장로의 사회로 엘살바도르교회(담임 노엘 소사목사)의 ‘알렐루야’, 뉴욕실버미션(대표 김재열 목사)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Yo Tengo Un Amigo’, 스페니쉬교회(담임 사무엘 벨라즈케즈 목사)의 ‘Glorious by BJ Putnam’ ‘Greater than by Gateway worship’, 뉴욕중국크리스찬코탈소사이터티(회장 피터 용 박사)의 ‘사망’ ‘My Blessings Are Sufficient’, 러시안교회(담임 송요한 목사)의 ‘주의 이름 높이며’, 나사렛교회(담임 아놀드 멘디자 목사)의 ‘These Days of Elijah’ ‘Give it All’, North Korea Mission,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단장 최연자)의 ‘Amazing Grace’ ‘The Lord’s Prayer’, 일본교회(담임 조기철 목사)의 ‘주님의 품에 안기어’, 뉴욕장로성가단(대표 전병삼 장로)의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삭개오야 내려오라-Alabara’, 다함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했다. 이어, 황규복 장로의 후원금전달, 송정훈 장로(준비위원장)의 인사 및 광고와 피터 용 박사(뉴욕중국크리스찬코탈 소사이터티 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 월드밀알선교합창단 제19회 찬양대축제

### 맨하탄 카네기홀에서 열려

월드밀알선교합창단 제19회 찬양대축제가 10월 9일(주일) 오후 7시 카네기홀에서 열렸다. 월드밀알은 2002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을 제외하고 매년 맨하탄 카네기홀에서 찬양대축제를 열어왔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지향하며 찬양사역한 길 35년째인 월드밀알선교합창단의 올해 찬양대축제는 특별히 CTS 뉴욕방송 창립 15주년을 기념하고 사랑의집을 후원한다. 찬양대축제에서 뉴욕 한인교회에서 프라미스교회 100명, 뉴욕예일장로교회 100명이 참가했다. 또 경남장로합창단 100명, 테네시남침과 소프라노 구하나, 세계에서 온 월드밀알선교합창단 170명 등이 월드밀알심포니오케스트라 40명의 연주 속에 찬양을 했다. 특별히 지난 7월 열린 엘살바도르 월드밀알 찬양대행진에서 큰 은혜를 끼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엘살바도르 국회의원인 아로네트 멘시아(Aronette

Mencia) 의원이 참가하여 간증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엘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가 시작기도를 했다. 멘시아 의원은 “전세계에 흩어져 찬양과 예배로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 다하는 모든 월드밀알 단원들과, 모든 리더들을 축복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단장 이다니엘 장로는 “뉴노멀 시대를 맞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이라며 “비록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불투명하고, 앞으로 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는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각 합창단의 찬양과 전 출연진 연합 찬양 후에,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원로목사의 축도로 내년을 기약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새생명비전교회 이동원 목사 초청 부흥회에서 이동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새생명비전교회 이동원 목사 초청 부흥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 만족은 '주님의 임재'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는 '고통의 시대를 이기는 룯기의 로맨스'라는 주제로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이동원 목사(지구총교회 원로) 초청 부흥회를 개최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임혁 목사 사회로 시작된 11일(화) 둘째 날 집회는 박장우 장로가 대표기도 했으며 윤승경 집사와 권엔드류 형제가 바이올린 특별연주를 했다. 이어 이동원 목사가 '은혜의 새 아침(룯 2: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룯기 1장은 고통의 장이며 2장은 은혜의 장, 3장은 안식의 장, 4장은 찬송의 장으로 룯기는 해피엔딩의 드라마"라고 설명했다. 그는 "룯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어는 기업 무를 자, 혹은 기업의 회복자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며 "대가를 지불하고 회개시키는 의미의 구속의 대상인 사람과 땅이다.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노예가 된다. 사람은 언제나 구속의 대상이다. 또 하나는 땅이다. 누군가(구속자)가 나타나 대가를 지불하면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누가 구속자가 될 수 있는가? 구속자의 자격은 첫째 친척이 되어야 한다. 둘째 재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원함이 있어야 한다. 나오미와 룯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룯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경험하는 축복은 첫째 보호의 축복, 둘째 위로의 축복, 세 번째 교재의 축복, 넷째 만족의 축복이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 만족은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져서 누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임재 때문이다. 그의 임재가 압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된다. 가장 중요한 필요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는 자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강준민 목사가 기도 인도했으며 이동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새생명비전교회에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이동원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강해 설교클리닉을 실시했다.

〈박준호 기자〉



유수연 차세대 살리기 랠리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유수연 차세대 살리기 랠리 "이번 선거는 캘리포니아 미래가 달린 선거"

캘리포니아 67지구 유수연 하원 후보의 거리유세를 겸한 차세대 살리기 랠리가 15일(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 동안 부에나파에 위치한 한남체인, 시온마켓에서 실시됐다. 이날 유 후보와 그를 돕는 자들이 노란티셔츠와 피켓을 들고 "미국을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를 살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십시오!"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유 후보 당선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으며 유세현장을 지나가는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고 엄지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등 유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유수연 후보는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의 미래가 달린 선거이다. 특별히 집권당인 민주당과 개편유심 주지사로서 해 실시되고 있는 공립학교 교육은 아이들을 파멸로 내모는 교육"이라며 "ABC교육위원으로 일하면서 공교육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미성년일지라도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성전환 수술을 부모 몰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현실이며 이는 하나님 뜻과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낸다는 것은 아이들이 죄를 짓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유 후보는 "11월에 치러질 선거에 저를 비롯한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어 이러한 최악이 가득한 캘리포니아 의회를 조금이나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의 보좌관 한진영 사모는 "오늘 유 후보의 거리유세 때 많은 차량들이 경적을 울린 것은 유 후보를 지지한다는 표현으로 보인다"며 "세금을 내고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현재 민주당의 정책 시행으로 나타난 결과물에 실망을 한 자들이다. 백인들은 물론 히스패닉들 역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이곳에 살기가 어려워진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수연 후보 랠리는 22일, 29일, 그리고 11월5일 등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실시한다. 유수연 후보에 관한 문의는 (562)822-7179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 코너스톤교회 첫 예배 29주년 감사예배 "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 첫 예배 29주년 감사예배가 16일(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가졌다. 이날 이종용 목사는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잊그제 같다. 창립 29주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바란다"며 "올 한해 코너스톤의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위해 손에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서 1년 후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응산 집사의 QT나눔, 임인옥 권사 기도,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감사예배는 김영준 집사가 간증했으며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종용 목사가 '벧엘로 올라가자'(창 35: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종용 목사는 "아름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많았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아름답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이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누렸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위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도 위기를 기회라고 한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불평하고 좌절하고 떠나고 자살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다. 우리에게 고난 환란과 위기가 찾아올 때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기회라고 여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이동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코너스톤교회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커넥션 행사를 가졌으며 19일(수) 수요예배는 커넥션 파송예배로 드렸다.

〈박준호 기자〉



코너스톤교회 첫예배 29주년 감사예배에서 이종용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예장백석 캘리포니아노회 목사안수식을 마치고 안수받은자들과 안수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예장백석 캘리포니아노회 목사 임직식 "목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다 죽는 자"

예장백석 캘리포니아노회(노회장 연제선 목사) 목사 임직식이 16일(주일) 오후 5시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이수호 목사)에서 열렸다. 연제선 목사 집례로 열린 예배는 서기 이은수 목사가 기도했으며 회의록서기 오요셉 목사가 성경봉독 했다. 이어 연제선 목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렘 5:1-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연제선 목사는 "목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 하다가 죽는 자들이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한다"며 "오늘 안수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가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와 구하고 공의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말했다.

이 서약, 축복기도 했으며, 안수기도, 성의착의 악수례, 공포, 목사안수증 및 임직패 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증경노회장 류낙영 목사와 장경노회 목사가 권면, 증경노회장 박찬식 목사가 축사했으며 이은수 목사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대표로 답사를 한 전제성 목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깊이 새기고 나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깨끗한 그릇 거룩한 흔적 남기는 한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럼없는 목사 자녀앞에 자랑스러운 아버지, 그리고 사람을 존귀케 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임직자 대표 송준현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안수받은 목사는 송준현, 백주은, 전제광, 전제성, 박은진 등이다.

〈박준호 기자〉



달라스교회연합 부흥회에서 김병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서부교계 게시판

**주님의영광교회 2022 미라클블레스 축복성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2022 미라클블레스 축복성회가 30일(주일)부터 11월19일(토)까지 오후 7시30분에 열린다. 강사는 신승훈 본교회 담임목사, 윤대혁 목사(사랑의빛선교회), 이나도미 유이치로 목사(가스펠실로교회), 김인찬 목사,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김은광 목사, 최형규 목사(생수의강선교회), 권에스터 선교사, 김종옥 목사(홀리랜드 성경연구소), 강석주 목사,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이다.  
▲ 문의: (213)749-4500

**제3회 함께하는 음악회**  
가정폭력으로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푸른 초장의 집' 후원 제3회 함께하는 음악회가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오는 23일(주일)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6959 Knott Ave. Buena Park)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Orange Mission Choir, 감사한인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Rahum Women's Choir, Grand Festival Choir 네 개의 합창단이 연합하여 연합합창단으로 연주를 하게 되며 테너 백동휘, 소프라노 이영주, TKC 첼버 앙상블이 특별출연한다.  
▲ 문의: 이경일 OMC 단장 (714)393-4003, 강민석 OMC 지휘자(714)371-3167

**나성한인교회 2022가을말씀부흥회**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 2022가을말씀부흥회가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벧후 3:11)'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21일(금) 저녁 8시, 22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23일(주일) 오전 9시, 11시  
▲ 문의: (323)221-9531

**샌디에고한빛교회 가을부흥회**  
샌디에고한빛교회(담임 이병희 목사) 가을부흥회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김홍훈 목사(버지니아 열린문장로교회)  
▲ 문의: (858)874-2412

**하와이 KCC & UH 대학생 및 청년초청 전국축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는 하와이 KCC & UH 대학생 및 청년초청 전국축제를 22일(토) 오후 4시 내리채플, 북카페 & 야외페디오에서 개최한다.  
▲ 문의: (80)861-2289

**워싱턴주 아시안문화협회 가을음악회**  
밴쿠버에 거주중인 한인학생 장학금 모금을 위한 워싱턴주 아시안문화협회 주관 가을음악회가 28일(금) 오후 7시 밴쿠버한인장로교회(담임 송성민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360)699-1241

**르완다선교 30주년행사**  
덴버북부장로교회(담임 정유성 목사)는 르완다선교 30주년 행사를 22일(토) 오후 6시에 갖는다. 이날 행사는 콜로라도 지역에서 르완다 선교를 후원하는 자들에게 감사와 나눔의 자리를 갖게 된다.  
▲ 문의: (303)452-4632

**휴스턴한빛장로교회 추계부흥회**  
휴스턴한빛장로교회(담임 정영락 목사) 추계부흥회가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개최된다. 부흥회 강사는 백정우 목사(남가주동신교회 담임)  
▲ 문의: (713)643-4348

### 달라스교회연합 부흥회 "우리 신앙은 늘 주님이 내 기쁨이 되어야"

달라스 교회협의회(회장 기영렬 목사) 주최 달라스교회연합 부흥회가 '제자임니까?'라는 주제로 14일(금)부터 16일(주일)까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14일(금) 저녁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에서 열린 첫 날 집회에서 김병삼 목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행 4:1-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병삼 목사는 "우리 신앙은 늘 주님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 주님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은 기복신앙과 축복의 신앙 차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라며 "기복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것을 주시는데 우리들이 복을 받

을만한 자격이 있을 때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인격적 관계 속에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누군가 힘들게 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은 믿음 때문에 살아간다는 확신이며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둘째 날 집회는 달라스연합감리교회(이성철 목사), 셋째 날 집회는 영락장로교회(명치호 목사)에서 열렸으며 목회자세미나는 17일(월) 하나로교회(심자겸 목사)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 카톡 먹통에 교회도 패닉, 주일 댁친 카카오톡 블랙아웃

## 주일에배 등 주요 사역 큰 차질, '카톡주보' 못 보내 단체 문자

전북 익산의 평안교회를 맡고 있는 안성국 목사는 주일 예배 준비로 분주하던 지난 15일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다. 평소 그는 실무자들에게 설교문을 작성해 매주 토요일이면 카카오톡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곤 했는데, 카카오톡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한동안 쓰지 않던 USB를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튿날엔 이웃 교회에 강의를 가서도 애를 먹었다. 그는 해당 교회에 카카오톡을 통해 강의에 활용할 각종 자료를 보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교회 실무자들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없었다.

지난 주말부터 주일까지 이어진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주일 예배와 양육·교제 등 교회의 주요 사역에도 불편함이 이어졌다. 한견에선 갑작스러운 소통 단절을 통한 신앙적 성찰도 눈길을 끌었다.

안 목사는 "출강하는 대학의 학생들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토요일까지 받을 자료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이 돼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편리함이 불편함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는 2020년 3월부터 중



이 주보를 없애고 매주 토요일 카카오톡으로 '미디어 주보'를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톡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성도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갈음해야 했다. 꿈의교회 관계자는 "교역자들끼리도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곤 했는데 이번 사태로 '올스톱'됐다. 채팅방을 새로 만들기도 힘들어 빨리 복구되기를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다.

한국교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카톡 의존도'를 돌아볼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연결사회의 허약한 시스템이 드러났다는 지적

도 적지 않다. 고상섭(그사광교회) 목사는 "편리함만 추구하느라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이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경험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기석(청과교회) 목사는 주일 예배에서 철례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침묵 속에서'를 낭송했다고 한다. 이 시는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시점에 김 목사가 교인들에게 전한 묵상의 선물과도 같았다.

"이제 열도를 세면/ 우리 모두 침묵하자/ 잠깐 동안만 지구 위에 서서/ 어떤 언어로도 말하지 말자/.../바쁜 움직임도 엔진 소리도 정지한 가운데/ 갑자기 밀려온 이 이상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리라..."

김 목사는 "성도들이 카카오톡에서 오가는 편향된 정보들, 온라인으로 연결된 온갖 상황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이 있다면 좀 멈추자는 것"이라며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콩물 포장·제빵·양봉... 세상과 담 허무는 장애인 일터이자 동지

## 강화도 직업재활시설 '우리마을' 공동체 '큰나무캠프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 7일 인천 강화도에 있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우리마을'에 도착했더니 이 성경 문구가 먼저 눈에 띄었다. 3년 전 콩나물 공장에 불이 난 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단장한 공장은 장애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1등 공신'이다. 53명의 발달장애인들이 평일에 배정된 업무에 맞춰 일하며 직업 재활 교육을 받는다.

우리마을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직업재활시설로 2000년 대한성공회 김성수 주교 주도로 설립됐다. 김 주교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9917㎡(약 3000평)를 우리마을을 위해 기부했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에 운영법인을 두고, 현재 49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19명의 직원들이 함께 지내고 있다.

우리마을에서 차로 15분 떨어진 강화도 진강산 자락에는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마을공동체 '큰나무캠프힐'이 있다. 2017년 설립한 공동체 마을에는 카페, 제빵소, 농장, 하우스가 들어서 있었다.

큰나무 카페 주변엔 그 흔한 울타리 하나 없다. 5950㎡(약 1800평) 규모의 텃밭에 큰나무캠프힐의 모든 건물과 농장이 연결돼 있다. 큰나무 캠프힐을 세운 문연상(57) 목사는 "일반 시설은 장애인들이 수용돼 있다는 개념이 강하다"며 "(캠프힐은) 장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오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큰나무카페'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입소문이 나서서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마을과 큰나무캠프힐은 공통점이 많다. 그 중 하나는 발달장애인과 세상의 담을 허물고자 노력하는 데 있다. 두 기관은 발달장애인들이 한 명의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들은 평일에 각자 속한 기관에서 일하면서 거주하고, 주말이 되면 각자 부모님의 집에서 지낸다.

우리마을에서 콩나물 생산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 20여명은 하루 최대 4시간을 일하면서 매일 콩나물 4000봉지를 만들어낸다. 우리마을은 2012년 식품 전문 기업인 풀무원과 콩나물 협력사업(MOU)을 체결하고 시중에 콩나물을 공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콩나물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이경재(37)씨는 "(발달장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며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종종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장 방문했을 당시 직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들의 손놀림과 생산 처리 속도는 비장애인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능숙했다.



과 생산 처리 속도는 비장애인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능숙했다.

커피박(찌꺼기)을 재활용해 연필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과 주택용 전기설비 가운데 분전반 내에 필요한 단자를 조립하는 '단자조립' 등의 작업도 있다. 아울러 장애인들을 위한 체력단련·난타·운동 등 특별활동도 마련돼 있다. 큰나무캠프힐에서 지내는 6명의 발달장애 청년들은 바리스타, 제빵사, 양봉업에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들은 한 직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며 일하는데, 다양한 직종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문 목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 문 목사는 "장애인과 세상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92) 주교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강조했다. 그는 우리마을 설립자이자 대한성공회 초대 관구장을 지낸 대표적 기독교 원로 인사다. "장애인들을 돕는 것은 비장애인들의 건강한 의무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 감신대, 인니 마나도국립신학대생 초청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 글로벌 웨슬리언 리더십 프로그램 (GWLP)을 진행



감리교신학대는 인도네시아 마나도국립신학대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글로벌 웨슬리언 리더십 프로그램'(GWLP)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GWLP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을 목회자와 신학생 양성을 위한 프

로그램으로 감신대 대학원 교수들이 강의를 맡았다. 행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됐으며 마나도국립신학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학생 8명(사진)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인천 내리교회와 강원도 철원 등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 "전 세계 빈곤아동을 돕자" ... 기아대책 '2022 스톱허거' 캠페인

## 기후 변화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동부 지원 캠페인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기후 변화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빈곤아동 및 빈민을 지원하기 위한 '2022 스톱허거

(Stop Hunger)' 캠페인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스톱허거 캠페인'은 심각한 세계 빈곤 문제를 국내에 알리고 기근이나 분쟁,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각 국가에 신속한 지원을 펼치기 위해 기아대책이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아퇴치 모금 캠페인이다.

올해는 기후 변화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동부의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를 중심으로 가나 르완다 등 10개국 22개 지역에 식량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마다가스카르는 최근 4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가뭄과 태풍 피해로 심각한 식량난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배우 윤은혜씨가 홍보대사로 참여해 마다가스카르의 식량 위기 문제를 알리고 관심과 후원 동참을 독려한다(사진).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심각한 굶주림 속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생명과 같은 식량을 전하고 현지 자립을 돕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분의 참여와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목회자 2명 중 1명 "늘지 않는 성도 수와 일꾼 부족 고민"

## 한국교회지도자센터 17일 설문조사 발표

지방에서 10년 넘게 담임목회를 하는 A목사는 최근 들어 부임 초기보다 성도들의 봉사 의향이 줄어들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는 "주일에 쉬고 싶은 마음이 부부가 늘어난 데다 코로나19로 성도들이 교회와 멀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본다"며 "다른 교회들도 구역예배 순장이나 청년지도자를 세우는 게 어려워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목회자들의 고민이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교회 목회자 2명 중 1명은 '현재 목회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성도수가 늘지 않는다'와 '교회 일꾼이 없다'를 꼽았다. 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대표 박중순 목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여주 마임비전빌리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제16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에서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담임목사 4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현재 목회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새신자 유입 감소'(52.1%)와 '헌신된 평신도 일꾼 부족'(50.0%)이라고 복수 응답했다. '현장예배 출석률 저조'(34.3%)와 '헌금 감소·재정 부족'(27.0%)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목회 계획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현장예배 강화'(40.3%)와 '소

그룹 강화'(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모이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영적별로는 다음세대 분야에서 '교회 학교와 가정의 연계 교육'(48.2%)을 1순위 계획으로 꼽았고, 소그룹 분야는 '교제와 친교 강화'(57.8%), 세계선교 분야는 '교인들과 단기 선교'(32.5%)를 가장 주된 사역으로 삼겠다고 응답했다.

목회자 10명 중 6명 정도(63.1%)는 현재 자신의 영적상태가 '지쳐 있다'고 답했다. 영적 체력의 극복 방안으로 '평소처럼 목회하면서 기도와 묵상 시간을 늘린다'가 40.1%로 가장 높았다. 교회를 벗어난 휴식이 여의치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은퇴 후 걱정되는 점은 '경제적 어려움'(59.9%)이 가장 많았다. 목회자의 절반이 넘는 54.8%는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세미나에서는 목회자들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임성빈 장신대 교수는 "목회 지도력은 목회자 개인의 인격과 덕에서 시작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기본 맥락이다. 따라서 공동체적이며 제도적 차원에서의 동역과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교회주의를 넘어 지역교회와 교단 차원의 인적, 물질, 제도적 네트워크의 강화가 절실하다"며 신학교에서 목회 전회적 신학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중순 목사는 정체성 회복을 꼽았다. 박 목사는 "영혼을 돌보는 목사는 보통 사람이어서 안 된다. 살 때도 죽을 때도 목사다워야 한다"며 "정도를 지키는 목회, 화려한 중도 포기보다 느려도 완주하는 목회를 하자"고 독려했다.

### 현재 목회 어려운 점 (단위: %) \*1, 2순위 합산치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QR Code: SCAN ME

한문 한문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ission 선교의 창 (203)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세속의 물을 거부하는 전투적인 교회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역사에서 비극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리 석은 것"이라 했다. 2천 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적지 않은 교회들이 내면적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외형적 형식과 건물에 치중해 왔다. 대표적인 것은 중세교회였다. 유럽에 가면 고색창연한 성당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령의 촛대는 꺼지고 빈 강통처럼 걸만 번지르르하게 남아 있는 곳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교회는 어떠한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크게 공헌해 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속의 논리 속에 맘몬니즘(Mammonism)의 영향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좀 더 크고 쾌적한 예배당 건축 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재 금융당국에 엄청난 채무를 지고 있다. 원금은 고사하고 매월 지불해야 할 이자가 22,000명의 한인 선교사 후원금을 초과하고 있다.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이 이렇게 불탄 검불처럼 하늘로 날아가도 되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한인교회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때에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보며 아플 정도로 구조 갱신을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투적 교회로서 야성(野性)을 회복해야 한다.

1. 가시적 건물에 치중한 중세 교회

중세교회는 영적으로 암흑기였다. 왜 그러했는가? 교회가 본질을 떠나 외면적으로 치중하는데 대부분 힘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황의 면죄권이었다. 그것은 11세기 말 십자군(十字軍)전쟁 때 대대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 십자군 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 잠잠해졌던 교황의 면죄권(免罪權)은 15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또 나타났다. 교황 율리우스 2세(Julius II)는 즉위하자마자 성 베드로 대성당의 교회 건축을 지시했다. 엄청난 건축 자금이 필요했다. 이때 율리우스 2세가 생각했던 건 면죄부였다. 그는 1506년에 희년 면죄부를 선포하고, 면죄부 판매로 얻은 수익을 성당 건축 기금에 사용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후임인 레

오 10세(Leo X)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리모델링할 막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도미니코 수도회의 한 신부에게 면죄부 판매를 의뢰했다. 그 신부의 이름은 "요한 테첼(Johann Tetzel)"이었다. 교황의 특명을 받은 그는 지옥 불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을 펼쳐놓고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기 바랍니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동전이 퀘 속에 떨어지는 소리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 자료에 의하면, 당시 가톨릭 교인들은 연옥을 두려워했다고 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연옥의 형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가르쳤기 때문이다. 테첼의 설교를 들은

조한 그의 설교는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TV 설교가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다. "권능의 시간(Hour of Power)"이라는 그의 설교방송은 한 때 130만 명이 시청하기도 했다. 이후 술러 목사는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교회 건물을 유리로 짓도록 했고 이름을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로 명명했다. 교회는 1,800만 달러를 들여 3년간의 공사 끝에 1980년 완공되었다. 필립 존슨이 설계한 중앙 성전에는 사각형의 유리 1만 664장으로 불투명 없이 특수 접착제로 부착했으며 건물은 8.0 강도의 지진이 와도 끄떡없게 제작되었다. 내부에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 중 하나가 설치되었다. 바닥을 제외한 벽과 지붕 전체를 유리로 지은 이 세계적인 건물은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불신자들이라도 구경하고 싶은 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2006년 술러 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는 경제적인 어

회 몰락의 주원인이었다.

3. 세계 선교비를 초과하는 한인교회의 부채 이자율

작금(昨今)의 한인 교회는 어떠한가? 20세기 후반부터 부동산 불이 일어나면서 교회 건축도 유행처럼 번졌다. 교회성장이라는 명목하에 너도나도 앞다투어 무리한 건축을 시도했다. "번듯한 예배당을 지어 놓으면 성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교회가 성도를 모으기 위해 갖춰야 할 제1요소가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예배당"이라는 세속적 인식이 목회자들 사이에 확산됐다. 그것은 필요보다 욕구적인 측면이 강했다. 이로써 많은 교회들이 멸망한 건물을 부수고 더 크게 짓기를 반복했다. 그 결과 현재 한인교회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어마어마하다. 기독교 연합신문의 아이굿뉴스(http://www.igoodnews.net)에 의하면 2012

없어 유감이다.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그 때보다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지 않았을까 싶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COVID19의 영향으로 교회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부흥은커녕 감소 추세에 있다. 이로서 여러 교회들이 대출 부실화에 따른 후폭풍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원금을 어느 세월에 갚을 것이며 매월 지급해야 할 기백억 원의 이자는 어떡하란 말인가? 이래저래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맺음 말

교회란 에클레시아(Ekklesia)이다. 이는 '로부터'라는 '에크(εκ)'와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클레시아(κλήσια)'가 합쳐진 말이다. 이로서 교회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 모인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생명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순복해야만 한다. 주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 설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된다. 초대 카타콤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 되어 성경 성을 유지했다. 저들 교회는 건물이 없었다. 제금이 없었다. 안락함도 없었다. 이에 반해 중세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었다. 그 곳에는 종교적 계급이 있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났지만 중세교회는 영적 쇠락기를 맞이했을까? 그것은 교회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며 모든 역량이 어디에 쏟았는가의 차이였다. 따라서 우리 한인교회는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며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것은 중세교회가 추구했던 형식(Form)이나 외형적 건물이 아닌 본분에 매이는 것이다. 세상을 향한 종말론적인 선교적 자세를 강조함이다.

jrson007@hanmail.net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본분 보다 건물이 주가 되면 성령의 촛대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기독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전투함 같은 성격으로 구조 갱신이 필요하다.

가톨릭 신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연옥의 불꽃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앞 다투어 돈을 주고 면죄부를 구입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대신 성당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중세교회는 타락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2. 미국 수정(크리스탈) 교회의 교훈

로버트 술러 (Rev. Robert Schuller)목사는 1955년 자동차 영화관 스넥가게 지붕에서 Drive-in-church 교회를 시작했다.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강

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2010년 10월 5,500만 달러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했다. 결국 수정 교회 건물과 캠퍼스의 소유권은 2012년 6월 9일 천주교 오렌지카운티 교구로 넘어간다. 5,750만 달러(한화 약 800억원)에 팔린 것이다. 20세기 후반 미국 개신교의 자존심이 자 얼굴이며 세계교회의 선두에 섰던 수정교회가 건축한 지붕과 32년 만에 이렇게 막을 내린 것이다. 교회 세습으로 인한 내부 갈등, 교인 감소, 세계적 경제위기가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결과적으로 무리한 건축과 과도한 대출이 수정교

기준, 한국교회의 금융권 대출 규모는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상호금융회사에서만 4조 9천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은행권의 대출 규모는 4조원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출 규모가 1, 2 금융권을 합친다면 10조에 육박한다. 연리 5.5~6.5%로 계산할 때, 매달 나가는 이자만 600억이 넘는다. 여기서 주목해 볼 일은 이 통계가 10년 전의 것이라 사실이다. 더구나 5천여 해외한인교회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2022년인 지금 세계 한인교회가 안고 있는 전체 부채는 얼마나 될까? 이에 관한 통계자료가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원 스토리 23강 / 레위인, 나실인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민 1-12장)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급에서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보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시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로 가도 그리 멀지 않은 곳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시내 산에 머물도록 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급으로 보내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각종 법'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살아온 삶의 양식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급의 왕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 문입니다(레 25:55).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가 되지만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사는 자신들을 보며 동화하고 영원한 속죄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막을 통해,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되는 죄도 반복되는 속죄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민 1:1-3)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 대표자를 세워 (민 1:4-17) 계수를 합니다.(민 1:18-46) 그러나 그 계수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는 들지 않았는데 그들

2:34) 레위 지파는 이번에도 다른 지파들과 함께 머무르지 아니하고 모든 진영의 중앙에 성막을 중심으로 머물렀습니다.(민 2:17)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하여 그들의 직무를 돕도록

민 3:44-51) 또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자손별로 계수를 하고 서로 다른 직분을 주시는데(민 4:1-33) 특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오직 고향 자손들이 메어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민 4:15, 7:9) 레위 자손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

레위인 중 레위인 예수그리스도 모든 죄인의 대표 레위 이전 벨기세벱의 반차로 오시 영원한 제사장

서 집중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므로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급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좇거나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하십니다.(레 18:1-5)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질기'이며 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레 23:1-44)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징계를 받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의 소망 없음을 인식하고 진정한 메시야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은 온전히 성막을 돌보고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고 성막을 걷고 치는 모든 일을 주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 1:47-54)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기호를 기호 결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민 2:1,2)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잇사갈, 스불론 지파요,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요,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민 2:3-32) 그리고 이 편성대로 행진하기도 하였습니다.(민

하십니다.(민 3:5-10) 그리고 레위 자손을 일 개월 이상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시고(민 3:14,15)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자손을 계수합니다.(민 3:16-39)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민 3:40)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합니다.(민 3:43)

그리고 이제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를 맞추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한 사람에게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받아 레위인을 주관하고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였습니다.(민 4:34-49)

성경은 지금 레위 지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도록 하십니다. 인구를 계수하여 난 차이는 속전을 내서라도 맞추십시오. 그리고 반복하여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민 3:12,45)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아들 중에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셨고(출 13:15) 그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민 3:13, 8:17) 그리고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딸이

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민 3:12,41,45, 8:16,18)

그러므로 출애급의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며 그 장자들을 대신하게 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레위인 중의 레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이지만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오직 레위인에서만 나올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이전의 벨기세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 이십니다.(히 4:14, 6:20) 성경은 지금 저주를 받은 조상 레위(창 49:5-7) 지파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대표하는 레위 지파와 같이 영적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레위 지파의 분깃이요 기업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민 18:20/ 신 10:9, 18:2) 레위 지파의 시작인 야곱의 세번째 아들 레위는 약한 자였지만 바로 그 약한 자의 자손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은혜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hfamilya@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세상심판 I (계 18:1-8) 찬 456장

종말 시대의 완성된 구원을 보여주는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세상에 대한 자세한 심판을 포함시킵니다.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첫째, 그들이 행한대로 갚으십니다. (6)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해를 끼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가 준 그대로 주고”라는 말은 갈라디아 6:8에 육을 위하여 심은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원리를 따른 심판입니다. 둘째, 갑절로 갚

아주십니다. (7) 말씀을 겸손히 복종한 자에게 임하는 갑절의 복과 상응하듯이 악을 행한 자에게 갑절의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입니다. 세속적인 영화와 사치를 큰 고통으로 징벌하십니다. 셋째, 신속하게 재앙이 임합니다. (8) 이 심판은 사망과 고난과 흉년과 재앙, 그리고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심판자가 의로우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 화 세상심판 II (계 18:9-11) 찬 167장

심판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세상과 교제하던 자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9) 음행과 사치로 세상을 즐기던 자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심판은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까지 크게 파급되어 하나님의 의의 두려움에 떨립니다. 둘째, 또 그들은 지옥 공포에 질립니다. (10) 쫓겨나 땅에는 바벨론 성을 지켜보던 그들은 큰 공포에

사로잡혀 세상이 받는 화로 인해 탄식합니다. 셋째, 그리고 세상과 거래하는 자들이 세상과의 모든 교제를 즉시 단절시킵니다. (11) 그 심판의 절대 파멸로서 모든 거래가 쫓겨나 단절되어 관련된 일들이 모두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로 깨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수 세상심판 III (계 18:12-14) 찬 489장

본문에는 왜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첫째, 물질주의의 죄 (12) 인간의 의식의 필요를 넘어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 위해 각종 보석과 향품에 마음을 쏟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배은망덕의 죄가 심판을 가져옵니다. 둘째, 영혼을 죽이는 죄 (13) 그들이 집착한 일락과 탐

욕을 위해서 인간의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이용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치부하던 죄 (14)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로 영생을 누릴 줄 생각하는 세상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극도의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것들을 경계합시다.

## 목 세상심판 IV (계 18:15-19) 찬 162장

세상심판은 어떤 부류에게 탄식을 일으킵니까? 첫째, 물질로 신으로 섬기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15-16)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주의자들에게 탄식이 일어납니다. 그 날에 모든 부요가 무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상에 속한 부자들이 탄식합니다. (17-18) 불에 타는 바벨론 성을 바라보고 그들은 교류할 대

상이 없어 애통합니다. 셋째, 쫓겨나 망함을 보고 탄식합니다. (19)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때에 갑자기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이성을 뛰어넘은 초자연적 권세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이 세상 심판을 생각하고 주어진 현재를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 금 성도의 환희 (계 18:20-24) 찬 342장

세상은 심판을 받으나 의를 따라 살던 성도는 왜 구원의 환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상 문화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자랑하

던 쾌락과 안전은 그 날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셋째,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음악 소리, 댄스 소리 그리고 신부와 신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환란의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일반은총을 누리는 기이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비참한 날이 오기전 복음 증거에 힘씁시다.

## 토 심판받는 이유 (계 18:24) 찬 375장

세상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는 악행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죄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둘째,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

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성도를 박해함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즉시 알려집니다. 창 12:2의 말씀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성도를 박해한 자에게 반드시 벌하십니다. 셋째, 사람들을 학살한 죄 때문입니다. 역사상 한 개인의 비진리의 이념으로 죽임당한 일은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시다.

# 기독교교육 (14)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 기독교교육과 선교

기독교교육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세 번째는 선교에 대한 교육과 참여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은 모든 그리스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이, 학력, 경험 또는 은사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지상명령 수행에 동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교에 대한 교육과 참여가 기독교교육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것입니다.

이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선교교육과 선교활동에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교육을 통해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든 교우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의 필요를 안다고 해서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교육이 선교참여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형받을 수 있고, 비밀리에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공개처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60개 이상의 나라에서 2억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 중 60%는 어린이들입니다.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알려주어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각오를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선교활동은 선교교육에서 비롯됩니다. 교우들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선교교육을 강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들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국처럼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교육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와 복음의 내용과 전파의 방법을 교우들에게 제시합니다.

교회는 선교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교회 구성원의 일부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성교회가 선교교육에 있어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교육은 여성교회만 나설 사역이 아닙니다. 남선교회와 교회 전체가 동참하여 선교교육의 책임을 분담하고 선교의 기회를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를 훈련하는 것처럼 선교를 교육해야 합니다.

41개 주의 4만7천여 교회에 약 1천4백만이 등록되어 있는 미국 남침례교단(Southern Baptist Convention)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남침례교인들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사로 하나가 되어 1845년 조지아주 어저스터에서 교단을 조직했습니다. 1888년 Woman's Missionary Union (W.M.U.)라고 불리는 여성교회가 시작되었는데, W.M.U.는 교회의 여성들과 청소년부, 유년부, 유치부에게 선교에 관해 교육하고 그들이 선교활동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니다. W.M.U.는 교단에 부속된 기관이 아니라 교단 협력기관입니다. 교단의 부속기관들은 교단에서 파송된 이사들이 운영의 책임을 맡지만, 협력기관인 W.M.U.는 각 주의 W.M.U. 대표들이 모여 운영합니다. 서적과 문서자료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교단의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선교정신을 고취”하고 “교단의 선교부를 위한 모금”을 위해 설립된 여성교회(W.M.U.)의 임무는 여섯가지입니다: 첫째, 선교를 위한 기도; 둘째, 선교활동과 전도; 셋째, 선교 공부; 넷째, 선교 후원; 다섯째, 선교적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영성개발; 여섯째, 교회와 교단사역에 동참.

남선교회는 Baptist Men on Mission (BM)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Brotherhood(형제회)라고 불렀었습니다. 여성교회가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남성들이 자극을 받아 1907년에 남선교회를 조직한 후 이름을 몇 차례 바꾸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초창기에는 남성들과 소년들이 선교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956년 그 목적이 남침례교회의 남성과 소년들 중에서 인재들을 발굴하여 선교활동에 동참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BM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선교활동에 동참; 둘째, 선교 교육; 셋째,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금; 넷째, 개인적인 사역 개발; 다섯째, 교회와 교단의 사역을 해석 및 뒷받침.

여성교회와 남선교회의 임무에서 보듯이 선교 후원은 기도와 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기관은 철학과 전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같은 사역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선교교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교과과정은 성경입니다.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교의 성경적인 토대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 선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가 하나의 인도주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선교교육의 핵심과 목적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성경은 선교에 관해 누가, 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선교교육에 있어 성경을 뒷받침하는 방법과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과 자료들을 활용하면 성경공부를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과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보아야 합니다.

선교교육과 선교참여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선교활동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jonk@dbu.edu



“사랑은 기도 사랑은 납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뉴저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뉴저지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동아시아 X국

▲ 종족명  
JR족

▲ 인구  
25만 명

▲ 종족의 종교  
티벳 불교

▲ 종족의 교회 상황  
전혀 없음

▲ 모델 되신 분에 대한  
특이사항

JR족 사람으로 농사를 짓고 산다. 남편, 두 딸과 사위들, 네 명의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티벳 불교를 믿고 살아왔다. 복음 전도의 대상이다.

▲ 기도제목

1. JR어로 된 최초의 책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이 잘 진행되도록
2. 번역된 성경 말씀으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3. 토착 교회가 세워져 JR어로 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종족이 되도록
4.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굳센 믿음과 필요한 환경들을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거나도록



### 선교 편지

#### 캄보디아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는 캄보디아에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벌써 가을의 문턱을 넘었을 시월한 바람이 그립네요. 이곳 캄보디아는 여전히 더위와 함께 하루에 꼭 한번은 억 세계 쏟아지는 비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그 길을 오토바이와 뚝뚝이, 사람들이 뒤엎겨 살아가는 광경이 일삼입니다. 저와 아내 권현정 선교사는 지난 9월 초 캄보디아에 도착한 이후 날마다 바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도 건강하게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10일부터는 G2K 캄보디아 여학원에 매일 매일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신 이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



도해 주십시오.

권오병 & 권현정 선교사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 캄보디아 언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지혜와 집중력, 열정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두근두근 두 딸서영, 서진이 친아버지 되셔서 믿음 안에서 비전을 잘 키워 갈 수 있도록

▲ 싱글맘 자녀 교육 후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지, 정, 의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과 양육을 위한 필요한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잠족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새싹 유치원 동기 문제가 잘 해결 되도록

좋은 교사를 만나 방과후 학교가 시작되도록

▲ 감장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신학교를 통해 배출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수 사역이 되도록 권오병 & 권현정 선교사

###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 61. 건강한 결혼생활

결혼생활이 건강하고 보람 있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하며,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한 두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건강한 결혼생활의 지름길입니다.

#### 1. 동반자 선택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건강한 동반자의 선택이 필요함

은 구약에서 이방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한 내용(창 24:3,28:1, 신 7:3, 수 23:12, 느 13:25, 말 2:11)과 일치한 것으로서, 결혼은 반드시 신자 간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로 오늘의 결혼에서도 적용됩니다.

신앙 안에서 동반자 선택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정확하지 못하면 결혼의 원리나 부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때에 더욱 깊어지고 의미있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남성(Male)과 여성(Female)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은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능과 역할면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전 11:3)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그리스도>남

### 남편과 아내, 가치와 존엄성 동일

### 남편과 아내, 기능과 역할은 구분

###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 감당

니다. 이러한 동반자의 선택은 사람의 일생의 행복과 불행의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동반자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의 발언권과 선택권이 거의 없고, 주로 당사자의 아버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결혼은 아브라함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동족으로 제한되었으며, 리브가의 신앙적 모험(창 24:58)도 함께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배우자 선택에 대한 직접적 교훈이 매우 적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결혼’(고전 7:39)과 ‘불신자와 결혼금지’(고전 3:16-17, 6:15, 19, 고후 6:14-16)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하신 성격적 결혼의 원리는 시대와 풍조를 초월한 불변의 진리이며, 누구나 지켜야 할 명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불변의 성격적 원리의 괴리현상에 대해서 마땅히 성격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 2. 남성과 여성의 본질과 역할문제

창세기 1-2장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본질과 역할에 관한 두가지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동등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자>여자’의 순이 하나님 창조 의 질서요, 가정의 질서입니다. 가정에서의 머리(Headship)는 남자(남편)이고, 여자(아내)는 돕는 배필(Helper)로 지음 받았기에,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은 동일하지만, 위계질서와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남성과 여성은 서로 보충하고 보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각기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도 본질적인 면과 함께 시대적 양상, 즉 문화의 소산과 직결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전통적인 관점에 제동을 걸고, 역할과 본질의 문제에 혼란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제36대 회장선거에 관한 공고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선거규정 제 5 조 “후보등록절차”와 제 9 조 “공고사항”에 의거하여 제 36 대 한인회장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 36 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동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인인민역사에 길이 남을 공명정대한 선거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 투표일시 : 2022년 12월 10일(토), 오전 9시~ 오후 7시(9:00am~ 7:00pm)

#### 2. 주요선거일정요약 :

- 유권자등록기간 : 2022년 10월 19일(수)~12월 2일(금), 약 45일
- 후보자등록서류배부일 : 2022년 10월 19일(수)~21일(금), 오전 10시~오후 2시
- 후보자등록일 : 2022년 11월 2일(수), 오전 10시~오후 5시
- 우편투표용지 발송일 : 2022년 11월 14일(월)부터~
- 선거일(투표일) : 2022년 12월 10일(토), 오전 9시~오후 7시 마감

#### 3. 투표참여방법 : “유권자등록을 하셔야만 우편투표 또는 현장투표가 가능합니다.”

- 우편투표 - 유권자등록을 하신분, 해당주소로 우편투표 발송
- 현장투표 - 유권자등록을 하신분, 3곳의 현장투표소에서 현장투표
- \*\*장소-추후알림
- 유권자등록방법 : 1) DMV 운전면허증 2) DMV ID, 3) 영사관 ID 중 하나의 사본을 선관위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소정의 양식과 함께 제출, 또는 선관위 사무실 방문 대면등록(대리등록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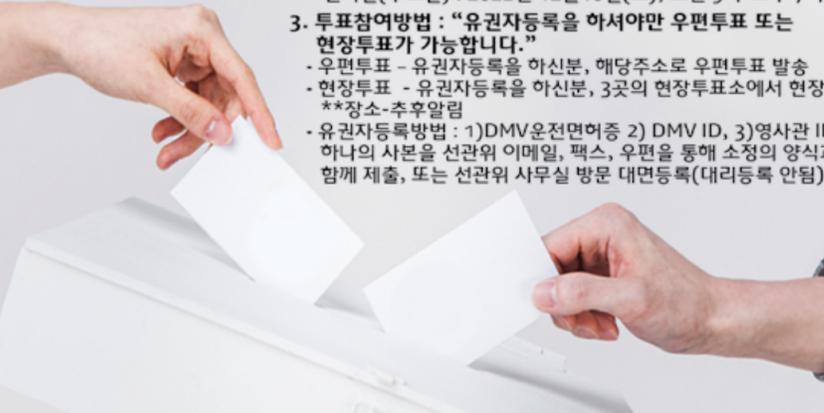
#### 4. 입후보자 자격 및 유의사항(\*선거관리규정 제4조, 5조 요약내용)

- 1)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 및 한국의 관련법규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 선고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 2) 후보등록시작일 기준 10년 내 본 한인회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 임원, 회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자격박탈, 제명퇴출, 직무정지등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 3) 후보등록시작일 기준 10년 이상 Los Angeles 카운티에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a) 최근 10년 내 본 한인회 이사 또는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 또는 b)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활동 근거지를 둔 단체에서 후보등록시작일 기준 최근 7년 내 3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활동 한 자 c) 본회 관할지역인 LA 카운티 내에서 한인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타 단체에서 임원, 이사, 고문 및 위원장등 어떠한 직책이라도 맡은 적이 없는 자,
- 4) 성범죄(성폭행, 성추행등), 마약범죄,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윤리에 반하는 범죄경력자,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단체 가담자, 그리고 조직에 심각한 분란의 원인제공자 또는 법적소송의 원인제공자는 아니어야 한다.
- 5) 입후보예정자는 서류배부기간 동안 입후보서류 수령시 Cashier's Check \$1,000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금액은 후보등록비로 포함된다. 단 후보등록을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반서류는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볼수 있음)

#### 5.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LA한인회관내) Address : 981 S. Western Ave #100., L.A. CA 90006 전화 213-800-2824 /이메일 election@kafila.org / 팩스 323-732-7009

#### 6. 후보예정자의 기금모금행사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9조 요약)

- 1) 후보 및 입후보예정자들은 자유로운 기금모금행사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서류배부일로부터 후보등록 시작 3일전까지로 한정한다.
- 2) 후보등록 이후의 기금모금행사는 불법이며, 입후보자격을 박탈한다.
- 3) 기금모금 성격의 행사로 모금되는 금액들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후보 등록비 및 선거비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체크에,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로 기재하여야 하고, 메모란에 반드시 "지지는 후보"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 4) 후원금금액은 개인및비즈니스 포함 1가정당 최대\$1,500을 초과할 수 없다.
- 5) 후원금모금행사에서의 후원은 모두 체크(check)로 받아야 하고, 선관위에서 정한 후원 확인서(Donation Form)와 함께 받아야 한다. 후원행사가 종료되면 2일내에 선관위에서 정한 후원확인서와 해당기금을 한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부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36대 로스앤젤레스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정희남 / 부위원장 : 장영기 / 위원 : 김용호, 그레이스 송, 엘렌 김, 조 송, 진달래

\*제36대 한인회장 관련 후보자자격 및 등록서류 등 세부사항은 LA한인회 웹사이트 http://www.kafila.org 상단부 “제36대 LA한인회장 선거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세대를 지켜냅시다

## Soo Yoo (유수연)

### 가주하원의원 후보

안녕하세요!  
Soo Yoo 입니다.

그 동안 한인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Soo Yoo(유수연) 가주 하원의원 후보 이력

- ✓ ABC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장 (2013-2022 현역)
- ✓ UC Irvine 대학 1988 학사 학위
- ✓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1993 석사학위
- ✓ NEW LIFE MISSION CHURCH 25년간 목회
- ✓ Gateway Academy 대학입시학원 창립자 및 대표
- ✓ 청소년 카운슬러
- ✓ 전 중앙일보 교육 칼럼니스트
- ✓ 전 GBC 복음방송 라디오방송 진행자

#### 현재 캘리포니아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문란한 성교육 그리고 성 정체성 혼란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ABC 교육구 교육위원장으로 섬기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출마에 결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솟는 물가와 세금, 그리고 급증하는 범죄와 홈리스 문제는 암울합니다.

새크라멘토의 과반수 하원 의회는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차세대 인구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급증하는 집값으로  
캘리포니아를 탈출 "캘탈"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저 Soo Yoo(유수연)와 함께 우리의 캘리포니아를 지켜 내는 데 투표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OTE

## 11.08.2022

여러분의 한 표로 차세대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 Fullerton
- Buena Park
- Cypress
- La Palma
- West Anaheim
- Cerritos
- Artesia
- Hawaiian Gardens

### 10월 10일 우편 투표 시작

투표 / 유권자등록 도움은  
선거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 (657)554-3024 (657)554-3025

13737 Artesia Blvd. Suite 108 Cerritos, CA 90703

Paid for by Soo Yoo for Assembly 2022 | FPPC #1446114

